

기본연구과제 2004-02

# 역사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전략에 관한 연구

박철희

## 발 간 사

지식산업시대에 있어서 문화와 문화공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쟁력의 요체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의 산물인 역사자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의 조성은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정비와 기존 도심자원을 연계함으로서 도시의 재생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주변지역에 있는 문화와 역사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으로의 가능성과 조성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화공간 조성은 공급자 위주의 문화정책, 도시정책, 산업정책으로 수단화 되면서 지역의 활성화에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 문화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에 추진되었던 문화공간 조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문화와 역사자산을 소재로 최근 새롭게 접근되고 있는 문화공간 조성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무쪼록 본 연구가 지역의 문화공간조성과 활성화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며, 본 연구를 수행한 박철희 책임연구원과 연구의 완성을 위해 자문을 해주신 도관계자, 자문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4년 12월 31일

원장 김 용 응

# 목 차

## 발간사

##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	4
4. 용어의 정의 .....	4

## 제 2 장 기존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검토

1. 분석의 틀 .....	8
2. 기존 문화공간 조성 검토 .....	8

## 제 3 장 문화공간 조성의 새로운 접근

1. 지역문화의 가치 .....	16
2. 공간조성의 새로운 접근 .....	17
3. 조성 모델 .....	20

## 제 4 장 문화공간 조성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37
2. 추진전략 .....	38

## 제 5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정책적 측면 .....	43
2. 법제도적 측면 .....	44
3. 계획적 측면 .....	45

참고 문헌 .....	48
부록 .....	50



## 표 목차

<표 1> 정책에 따른 문화분야 및 세부분 .....	5
<표 2> 문화산업 분류비교 .....	7
<표 3>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화공간 구성 .....	10
<표 4> 물적·비물적 구성에 기중에 계획특성 .....	12
<표 5> 기존 문화공간 조성 검토 종합 .....	15
<표 6> 문화자원 개발 잠재력과 대상 .....	18
<표 7> 문화마케팅 유형별 국내외 적용사례 .....	19
<표 8>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1단계:1999~2003) .....	25
<표 9> 초기 3개년간 육성사업계획(2003-2005) .....	35
<표 10> 전통적 마케팅과 문화마케팅의 차이 .....	42

## 그림 목차

<그림 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권역도 .....	22
<그림 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도 .....	23
<그림 3>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계획 .....	26
<그림 4>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사업도 .....	28
<그림 5> 국제적 관광명소로 성장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	32
<그림 6> 홍성 중심시가지의 역사문화공간과 상업공간의 연계 .....	36

# 제 1 장 서 론

## 1. 연구배경

### 1) 문화의 부재와 지역의 낙후

문화와 지역 문화공간 부재는 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삶을 질을 저하시켜 인근도시로의 인구 유출, 지역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수단으로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문화관광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위주의 단기적인 사업은 환경훼손과 경관침해 만을 남김으로서 지역 자원의 고갈과 황폐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예산, 법적 개발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 산지 등에 문화시설을 입지시킴으로써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2)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문화소비욕구의 지속적 증대

21세기 '문화의 시대' 도래와 경제사회적 변화는 문화와 관련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대와 성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경기하락에 따른 서비스업 활동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관련산업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sup>1)</sup>

특히, 지식기반사업 중에서도 영화, 방송, 도서관·박물관 등을 포괄하는 문화산업의 증가

---

1) <http://kctpi.re.kr/> 문화산업의 최근동향 (2003.11.7)

율이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증가율을 능가하는 현상이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세의 원인으로 문화소비계층의 소비비중 증대, 주5일제 근무의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전반적인 문화향수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 3) 기존 공급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의 한계

전통적 또는 시설공급적 접근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기존 문화공간 조성은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은 발굴 및 보존에 치우친 전통적인 문화정책과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나누어지는 시설공급적 문화공간 조성이 아닌 공간자체가 문화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문화공간의 조성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단위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아닌 지역전체의 문화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과 적극적인 활용프로그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 4) 지역문화와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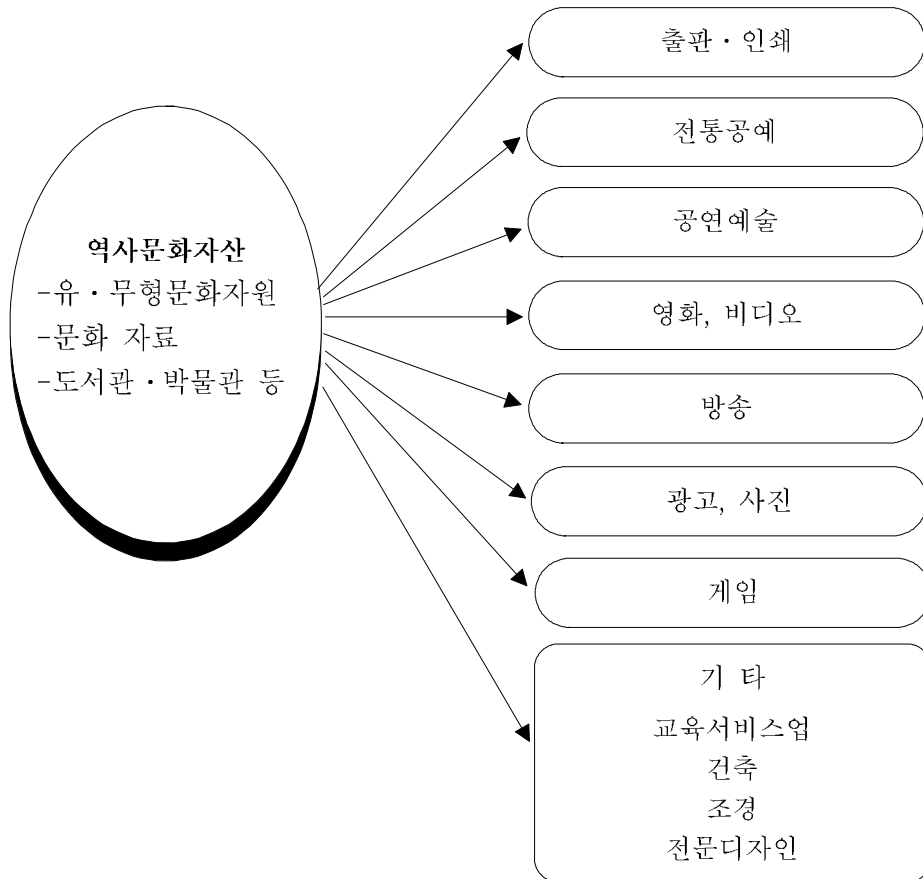
문화연상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위 역사유산, 2위 대중문화, 3, 4위는 현대예술과 전통예술 등으로 파악<sup>2)</sup>되고 있으며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역사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역사자산은 문화산업의 소재이자 콘텐츠 역할 수행하며, 최근에는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자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활성화 계획과 함께 성공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군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기존의 지역개발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매일경제 2001.05.13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년 문화향수실태조사' 에서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문화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에 추진되었던 기존 문화공간 조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을 소재로 최근 새롭게 접근되고 있는 문화공간 조성사례를 살펴봄으로서 개발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과 시군별로 추진되어지는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언급하게 될 문화, 문화유산과 문화자원, 문화공간, 문화산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통하여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문화공간 조성  
에 대해 계획적, 정책적, 법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새롭게 접근되고 있는 방향을 소개함으로서 문화공간 조  
성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본다.

연구의 방법론은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인 접근을 취하며,

- 이론적으로는 문화경제론, 문화마케팅, 도시마케팅 이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 경험적으로는 국내외 지역활성화를 위해 역사자산을 활용하여 조성 예정인 문화공간을 사례별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이론적 틀의 바탕위에 최근 시행되고 있는 경험적인 계획 사례를 통하  
여 추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전략을 도출한다.

### 4. 용어의 정의

#### 1) 문화

문화는 “인간에 의해 형성되어 시대 혹은 집단이 공유하는 총체적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 놓은 행동  
양식,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하나의 사회생활양식 전체를 문화라  
할 수 있다.(UNESCO)

그러나, 문화는 사회생활양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제와 함께 각 도시의 우위성(경쟁력)  
을 판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문화의 우위성은 문화산업의 형태로 표출되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sup>3)</sup>하고 있다.

---

3) 이정식 · 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2001.12.30, p362

현재 문화관광부의 정책범위에 따른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정책에 따른 문화분야 및 세부분

분 야	세부 분야	
문화예술	문화재 관련	· 전통사찰과 향교, 국가적·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각종문화시설	·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활동	· 음악, 연극, 무용 등
문화산업	·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출판 등	
관 광	· 관광사업, 관광진흥, 관광시설 등	
언론방송	· 신문, 잡지, 통신 등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광고	

## 2) 문화유산과 문화자원

문화유산이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과학·기술·관습·규범 등으로 민족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로서 정의되며, 크게 유형, 무형의 유산으로 분리할 수 있다.

문화자원은 문화유산을 목적에 맞게 필요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 3) 문화공간

일반적으로, 문화공간이라 하면 문화시설, 문화거리, 문화지구로 구분되는 “협의의 공간”들을 말한다.<sup>4)</sup>

그러나, 진정한 문화공간은 수많은 시민의 일상적 삶을 보이는 “일상공간”을 포함<sup>5)</sup>하는 공

4) 도시의 대표적 공간에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민 대다수의 삶과 문화를 축적하고 생성해 가는 국지적 장소성과 독특성에 기반을 둔 공간들이 있다. 도시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파악하는데 이것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문화거리, 문화지구, 문화벨트로 나뉜다. 이러한 “협의의 문화공간”은 시민의 삶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며 큰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러한 공간들은 도시의 문화적 상징성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으로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상 문화공간의 정의는 지역의 주민 생활권과 연계된 역사문화 공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4)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지역문화의 주요 부문인 식문화, 주거문화, 의류문화, 민속문화, 전통예술 등의 산업화 혹은 경제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축적된 문화기반을 근거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업화까지 포함한다.

즉, 문화산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분야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시대별 용어의 의미와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0년대 문화의 대량생산·소비에 따른 대중화 현상으로 등장
- 1947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
- 1960년대는 경제적 개념에서 '문화·예술을 상품화하여 대량생산·소비가 가능한 산업'으로 정착
- 1970년 유네스코는 '인쇄자료 및 문헌, 음악, 라디오 및 TV, 영화·사진,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체육활동, 문화의 일반운영'을 문화산업으로 분류
- 1990년대 들어서는 디지털·온라인 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문화산업이 융합되면서 신지식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
- 현재, 지역문화의 산업화는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흐름이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전환된 가운데 문화산업이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sup>6)</sup>

5) 일상성/비일상성, 역사성, 제도성 등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문화의 내용은 예술처럼 고도로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형태로부터 분방하기 이를 데 없는 일상적 삶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화공간에 대한 개념과 관점은 문화의 내용이 안고 있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6) 이정식·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2001.12.30, p362



〈표 2〉 문화산업 분류 비교

문화산업 기본법	문광부 (10대분류)	SIC8차 개정 특수목록분류	유네스코 분류(11개)	캐나다	호주
출판	출판(신문)	출판, 인쇄	인쇄자료 문헌	문학	문학
음반	음반	음반	음악	음악	음악
미술품, 전통공예품		공예품	시각예술		
공연		공연	공연예술	공연예술	공연예술 음악 공연서비스
영화, 비디오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영화	영화, 비디오 (시간예술)	영화, 비디오
방송	방송	방송	텔레비전	TV, 라디오	TV, 라디오
광고	광고	광고, 사진			
게임 멀티미디어콘텐츠	게임	게임			
문화재 관련 산업		문화관련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유산	문화재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재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기록물
캐릭터	광고				
		관련교육서비스업, 건축조경설계, 전문디자인	사회문화활동 체육활동, 자연환경문화 의 일반운영	지역문화활동, 교육, 축제와 문화행정, 체 육, 오락, 건강, 자연환경	시각예술 (디자인, 건축설 계 포함 지역문 화활동, 교육, 축 제와 예술행정, 스포츠, 오락, 동 식물원)

주: 산업연구원,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박진수 외2인 pp18 인용

## 제 2 장 기존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검토

### 1. 분석의 틀

기존 문화공간의 형성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삶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간과 인위적으로 정책에 의해 형성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간은 지리적 조건, 주민들의 삶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조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문화공간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에 의해서 조성된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조성된 문화공간은 거시적인 문화정책에 의해 정책적 측면에서 방향이 설정되며, 이를 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과 법제도적인 측면은 정책의 실현을 위해 법제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이 이론적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 완벽하게 법제도가 갖추어 진다고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 측면과 함께 법제도적 측면에서 기존 문화공간 조성의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 정책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계획적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존 문화공간 조성 검토

## 1) 정책적 측면

우리나라 문화공간 조성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정부주도 하에 추진되었으며, 문화공간의 공공적 특성으로 추후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기존 정부주도하의 문화공간 조성은 정책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여 왔으며 시기별,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기별로는 제 3, 4공화국의 ① 문화재 중심기, 제5, 6공화국의 문화예술진흥기, 문민정부의 ③ 문화산업 중심기를 거쳐, 현재는 지역문화의 관심증대와 함께 문화의 분권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정보화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책유형별로는 ①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전통적인 접근, ② 문화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시설공급적 접근, ③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미디어 및 콘텐츠 문화산업 중심의 산업적인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접근은 전략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문화의 도구화'와 '정부주도형 문화정책'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접근은 문화를 이용하여 정권의 정당성 및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시설공급적 접근은 문화시설 위주의 공급으로 주변 문화자원 및 도시자원과의 연계개발이 미흡하였으며, 산업적 접근은 문화를 이용한 지나친 상업주의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

문화는 지역주민 또는 대상층의 정서와 욕구로부터 표출되고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문화공간의 조성은 문화공간의 향유대상자인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 활용성과 지속가능성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공급자의 중심의 문화정책, 수요자에게 강요하는 문화정책은 본래 문화의 본질이나 가치를 상실시키고 있다.

---

7) 국토연구원, 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도시마케팅적 접근을 중심으로, 2000.12.30, pp24-32

〈표 3〉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화공간 조성

구 분	전통적인 접근	시설공급적 접근	산업적 접근
활 용	정치적 수단	물적 수단	산업·경제적 수단
전략목표	사회통합 주체성 및 정체성 확립	도시의 물적 재생 도시환경의 질 제고	경제, 산업 재구조화에 대응
주대상	전통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복지, 생활문화	문화산업
연계정책	문화정책	도시정책	산업정책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화재원형 보수, 고도문화권의 개발, 고궁복원</li> <li>- 세종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대규모 전시공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 면, 동 단위 문화의 집 설치</li> <li>- 생활권별, 시·군·구 단위별 도서관, 문예회관, 공연장, 문화원, 전시장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거리</li> <li>- 문화의 관광산업화, 문화관광루트개발, 문화예술이벤트 및 축제 활성화와 관광자원화</li> <li>- 문화와 지역산업의 연계</li> </ul>
문화공간 조성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홍보성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 자원 및 도시공간과의 연계부족</li> <li>- 일부 특권층 전유물로써 고급문화예술위주 육성</li> <li>- 문화관련 사업을 위한 주변문화공간조성 투자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 정부 중심의 문화시설 공급</li> <li>- 문화시설 위주의 공급으로 주변 문화자원 및 도시자원과의 연계개발 미흡</li> <li>- 문화적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 질에 대한 고려 결여</li> <li>- 제한적인 문화투자재원으로 실적위주의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주도 문화산업정책으로 문화산업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가속</li> <li>-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등 문화의 지나친 상업주의 야기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수준 향상 미흡</li> </ul>

## 2) 법제도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에서 문화공간 조성은 세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역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보존·정비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둘째,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지구·거리 조성사업, 셋째, 유무형의 문화요소들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관광형 사업 등 이다.

사업시행 주관부서로서는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조세감면 등), 행정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다.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시행주체	비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문화재청	예산지원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보존특별법	문화재	문화재청	예산지원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기반시설	건설교통부	예산지원
시범도시사업	도시계획법	기반시설	건설교통부	예산지원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차체 도시계획조례	문화시설 기반시설	문화관광부	예산지원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기반시설	문화관광부	예산지원
제3, 4종 미관지구	도시계획법	기반시설	건설교통부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기반시설	문화관광부	세제지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문화시설 기반시설	행정자치부	예산지원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문화시설 기반시설	농림부	예산지원

### 3) 계획적 측면

문화공간 조성의 계획적 측면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계획, 단지·환경계획방법론에 의한 시설별·부문별 계획, 시범도시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연구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단지·환경계획방법론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한 별도의 테마가 아닌 단지, 환경조성에 있어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시범도시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공간 조성의 지침은 문화공간 개념, 구성요소, 유형구분을 통하여 유형별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공간 개념

도시가 이미 갖고 있는 독자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환경으로서 그 가치가 인식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발전되는 도시의 일정한 범역을 '문화공간'이라 정의

#### (2) 문화공간 구성요소

문화공간의 기본 3요소로서 ① 거리(가로, 광장 등), ② 사람, ③ 문화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6대 요소로는 ① 물적 환경, ② 문화자원, ③ 공공서비스, ④ 정보서비스, ⑤ 행사연출, ⑥ 체류와 오락 등을 제시

#### (3) 문화공간 유형구분

도시문화공간을 물리적인 기준과 비물리적인 기준으로 유형화하며, 물리적 기준으로 거리를 가로중심형, 광장중심형, 광장연결형으로 구분하며, 비물리적 기준으로 역사형, 명소형, 활동형으로 구분하여 제시

〈표 4〉 물적·비물적 기준에 계획특성

구 분	유 형	계획특성 및 적용
물 적	가로중심형	· 직선, 곡선형의 형태를 취하며, 좌우 혹은 상하로 발달 · 대부분 도심의 중심가로, 상업가로 또는 서적, 골동품 등의 특화된 상가들이 이에 속함
	광장중심형	· 광장이 활동 및 시각적 포인트의 중심지 역할 수행
	광장연결형	· 광장이 가로의 시·중점 역할 수행
비물적	역사형	· 역사적 사건·행사가 이루어져 거리가 장소화된 곳으로서 역사적인 건물,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유명한 곳
	명소형	· 유명 명사의 집, 생가, 거닐던 거리, 작업공간 또는 장소 등으로 일련의 테마가 있는 곳
	활동형	· 축제, 공연, 연극,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활성화된 곳

(4) 문화공간 유형별 정비방안

유 형	구성방안	문화 자원	정보 서비스	행사 연출	체류 오락	공공 서비스	물적 환경
가로 중심형	· 상업지역 도로를 이용	△	○	○	○	○	○
	· 특성상업가로 유도 설정	○	○	○	○	○	○
	· 가로시설물의 정비 확충	△	○	○	○	○	○
광장 중심형	· 기존 광장시설물 이용	△	△	○	○	○	△
	· 역사형 가로	○	△	△	△	△	△
	· 이벤트·문화 활동 중심 도로	○	○	○	○	○	○
광장 연결형	· 기존광장·도로시설을 이용	△	○	△	○	△	○
	· 역사형+명소형 가로	○	○	△	○	○	△
	· 축제+상업기능 확충	△	○	○	○	△	○
역사형	· 역사적 사건, 행사기능확충	○	△	△	○	○	△
	· 보전·복원 등 행정 조치	○	△	△	△	△	△
	· 기존도로·자연·인공요소이용	○	○	△	○	○	○
명소형	· 역사성, 장소성	○	△	△	○	△	△
	· 지역 이미지, 정체성	○	△	△	○	○	○
	· 가로시설물의 정비·확충	△	○	△	○	△	○
활동형	· 축제,이벤트 활동중심도로	○	○	○	△	△	○
	· 역사성, 장소성	○	△	△	○	○	△
	· 상업, 편익서비스 기능강화	△	○	○	○	△	○

주: ○적극정비, △소극정비

#### 4) 검토의 종합

상기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적, 정책적, 법제도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 정책적, 법제도적, 계획적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책적 측면

문화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의 수단이 되는 문화의 도구화로, 전략적으로 문화를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문화공간은 수요자 또는 대상층의 정서와 욕구로 표출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서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 (2) 법제도적 측면

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재청, 시설위주의 문화자원을 다루는 문화관광부, 도시자원을 다루는 건교부, 기타 문화환경 정비를 다루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의 법제도가 있다.

부처위주의 사업추진은 단위시설 사업추진에는 용이하나 복합적 기능공간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에는 예산상, 업무상 한계 등으로 주변공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는 미흡하다.

문화재청 사업은 단위 문화재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까지 포괄하는 문화공간 조성에는 한계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단위시설만을 한정함으로 역사문화자산, 시설, 공간 등 요소 간을 연계하는 체계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범도시는 경쟁력 있는 시범문화도시 선정기준 모호,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 (3) 계획적 측면

계획기법상 기존 문화공간 조성은 단위시설, 내부공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지, 외부공간 레벨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위시설, 내부공간은 공간과 이용자의 관계가 중요한 반면 단지(團地), 외부공간에 있어서는 시설간의 관계, 행동 패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시설, 내부공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기법으로 지역에 적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건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범도시형 문화공간 표준모형은 가로중심으로 되어있어 지구, 단지적 차원(團地的 次元)의 문화공간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가로중심의 단순 문화공간 모형제시는 자칫 획일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특성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기존 문화공간 조성에 검토 종합

구 분	현 황	문제점
정책적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별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문화산업의 진흥 등 변화를 가져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수단화 도구화로 문화중심의 정책이 수립되지 못함</li> <li>· 공급자 위주의 문화시설 공급으로 수요자의 위주의 문화공간조성 미흡</li> </ul>
법제도적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재청, 시설위주의 문화자원을 다루는 문화관광부, 도시자원을 다루는 건설교통부, 기타 문화환경을 정비하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의 제도가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간의 업무영역, 예산의 한계로 연계사업추진 미흡</li> <li>· 문화재 주변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비탄력적 법제도 운영</li> </ul>
계획적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시설, 내부공간 위주의 문화공간조성 계획 기법</li> <li>· 시범도시형 문화공간조성 지침 제공 (건설교통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공간 조성 계획 기법의 미흡으로 획일적인 문화공간 공급</li> <li>·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인프라(데이터베이스, 목록, 지도 등)구축 미흡</li> </ul>

## 제 3 장 문화공간 조성의 새로운 접근

### 1. 지역문화의 가치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축약되는 세계사적 문명의 변환은 이제 문화에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경제’로 상징되는 용어에 있어서 문화는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공공적<sup>8)</sup>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즉 수단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지역문화는 자기 정체성과 동질성 확보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그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경쟁력인 것이다.

특히, 지방화의 급속한 진행은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용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문화와 역사자산을 소재로 한 연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상품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욱 절박한 현실은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기대효과가 같은 수준의 가치로 환원되어야 하고, 지출한 만큼 수입이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경제논리 위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최근 자치단체별로 기존의 전통적인, 시설공급적인 측면에서의 문화공간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진 역사자산을 문화공간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산물인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의 조성은 기존

---

8) 문화는 공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증가치(bequest value), 위광가치(prestige value), 교육가치(education value) 등이다.

역사문화자원의 정비와 기존 도심자원과의 연계함으로서 도시의 재생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공간조성의 새로운 접근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은 지역 역사자산의 특성을 발굴·보존·복원하고 이를 문화공간화 하며 주변의 생활권과 연계하는데 있다.

특히, 주변 생활권과 연계된 새로운 문화공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생활권이 연계 되어 있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새로운 문화공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기존 문화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첫째, 공급자 위주의 문화공간에서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 둘째, 단순 문화공간에서 기능복합형 문화공간
- 셋째, 문화와 문화공간의 상품화와 관련산업의 접목

### 1) 공급자 위주의 문화공간에서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수요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은 구심성 미흡으로 지역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시행정이 가져오는 문화시설의 공급은 조성 후 시설의 활용 미흡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관리부담을 증가시켜 재정악화와 성장 잠재력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적 맥락과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주민참여형<sup>9)</sup> 문화공간 조성은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에 주요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9) 개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주고,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사회심리적 안정요인 및 당위성을 제공하며, 한편 참여를 통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자원의 공동부담 및 향토관리,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효과가

있다.

## 2) 단순 문화공간에서 기능복합형 문화공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의 자원화와 함께 접근이 편리한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공원 등이 강력하게 결합된 복합화된 거점 문화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 거점 문화공간이라 함은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도심부의 일단의 공간을 의미

- 특히, 지역활성화의 동인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경우에는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공간의 개발과 함께 네트워크화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sup>10)</sup>

〈표 6〉 문화자원 개발잠재력과 대상

구 분	잠 재 력	대 상
문화자산	활용가치가 있는 문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의 문화자원</li> <li>· 무형의 문화자원</li> <li>· 문화공간과 주변영향권</li> <li>· 문화산업과 주변단지</li> </ul>
문화시설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li> <li>· 거리, 공원</li> <li>· 공공의 교통인프라</li> <li>· 쾌적한 자연 및 경관환경</li> </ul>
거점 문화공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능이 복합화된 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과 결합된 문화공간</li> <li>· 쇼핑몰과 결합된 문화공간</li> <li>· 공원, 쇼핑몰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li> </ul>
문화 클러스터	동질의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연구, 소비, 생산, 공급이 유기적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화된 지역문화공간</li> <li>· VP, SO, SS<sup>11)</sup>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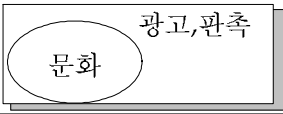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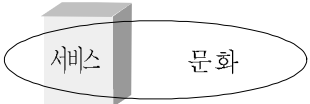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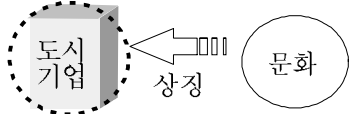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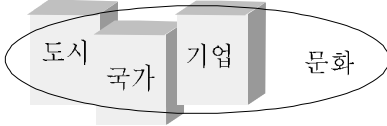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방향, 1997.6, p16)  
 10)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2004.2.16

### 3) 문화와 문화공간의 상품화와 관련산업의 접목

문화공간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관련산업부문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법으로 문화공간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그 활용방식에 따라 5가지 유형<sup>12)</sup>(5S)과 유형별 국내외 대표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판촉 : 문화를 광고, 판촉수단으로 활용
- 문화지원 : 국가, 자치단체, 기업 홍보 또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문화활동·단체를 지원
- 문화연출 : 문화공간에 서비스, 이벤트를 도입하여 차별화
- 문화도시 :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포지셔닝
- 문화후광 : 국가, 자치단체가 문화와 문화공간의 매력을 후광효과로 향유

〈표 7〉 문화마케팅 유형별 국내외 적용사례

문화마케팅 유형(5S)	유형별 개념	국내외 사례
문화판촉 (Sales)		- 로마(고건축) - 수원(화성)
문화지원 (Sponsorship)		- 구마모토(아트폴리스) - 전주(한옥마을)
문화연출 (Synthesis)		- LA(디즈니랜드) - 용인(한국민속촌)
문화도시 (Style)		- 교토·나라 - 경주
문화후광 (Spirit)		- 파리(예술의 도시)

11) VP(Vision Provider)는 비전제시자로서 일반적으로 중심대학이 담당, SO(System Organizer)는 시스템 통합자로서 기업들이 담당, SS(Specialized Supplier)는 전문지식공급자로서 금융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제공자들이 담당

12) 삼성경제연구소,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2002.10.30

### 3. 조성모델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사례는 공간계획적, 법제도적으로 문화권형 사업, 시범도시형 사업, 지구단위형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문화권형

- 기존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내포문화권, 중원문화권, 영산강·다도해문화권, 고구려·고려문화권, 강화문화권 중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내포문화권과 가야문화권 계획을 중심으로 소개

#### ② 시범도시형

- 시범도시계획은 강릉 전통문화, 남악 생태 및 교통, 광주 문화시범도시 등이 계획 수립된 상태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예정인 광주 문화시범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 ③ 지구단위형

- 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로 수행된 개별사업으로서 많은 사례가 있으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조성, 홍성읍 종합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소개

본 연구에서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수의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추진되었거나 추진예정 사업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형 구분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문화권형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사업	·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보존·정비를 통한서해안시대 문화관광산업 지대로 육성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 가야문화의 복원과 도시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사도시, 문화도시로 발돋움
시범도시형	광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 문화산업과 문화·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문화 중심도시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	· 역사·문화·자연·안보에 기반한 강릉다움의 재창조 - 문향, 예향, 절향
지구단위형	전주한옥마을 조성 사업	· 도심 전통한옥마을의 보존정비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홍성읍 종합육성사업	· 홍주성의 복원과 도심기능의 연계를 통한 내포문화권 중심도시로 도약

## 1) 문화권형 조성 모델

### <특징>

- 자원특성상 시대, 지역, 주제 또는 각각에 대해 공통적인 특징을 보유
- 공간범위상 광역적이며 문화권역의 경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사업목표상 문화유적 보존정비와 함께 관광, 도로 등의 관련기반시설을 확충

### (1) 서민문화의 전승지, 내포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

충청남도는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소외되어 낙후되었던 서해 내포지역을 문화권형 특정지역 개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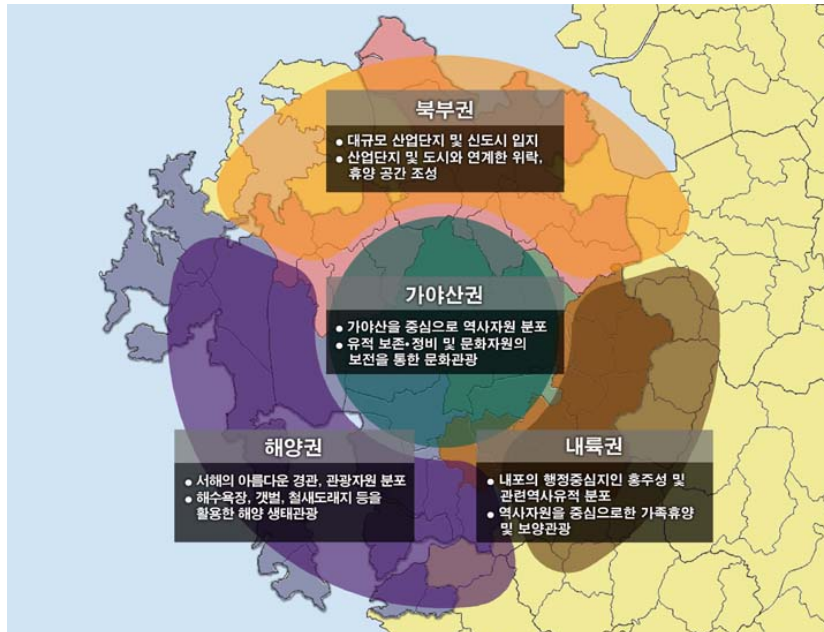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은 기존의 왕도, 귀족 중심의 문화권형 개발에서 역사·공간적 측면에서 '내포(內浦)'를 정의하고, 역사·민속·경관자원 등에 바탕을 둔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 관, 학, 언론 등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추진과정

- 학술부문에서 부분적으로 내포에 대한 연구 추진 - 논문 및 단행본, 1999
- 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2001.5
- 충남발전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2002.12
-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국토정책심의회 준비, 2004.7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정비, 경관·생태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문화창달 및 발전 계획으로서, 총49개 사업, 1조2,22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문별로는 정신문화, 문화유적, 관광휴양,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으로 추진예정이다.

〈그림 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권역도



사업 부문	사 업 수	소요예산(억원)	비율(%)
합 계		12,222	100.0
1 정신문화창달사업	서산박첨지놀이전수관 외3개	188	1.5
2 문화유적정비사업	가야산유적지주변정비 외30개	4,040	33.1
3 관광휴양시설확충	간월도 관광지 외 7개	2,074	16.9
4 기반시설확충사업	가야산 순환도로 외 6개	5,920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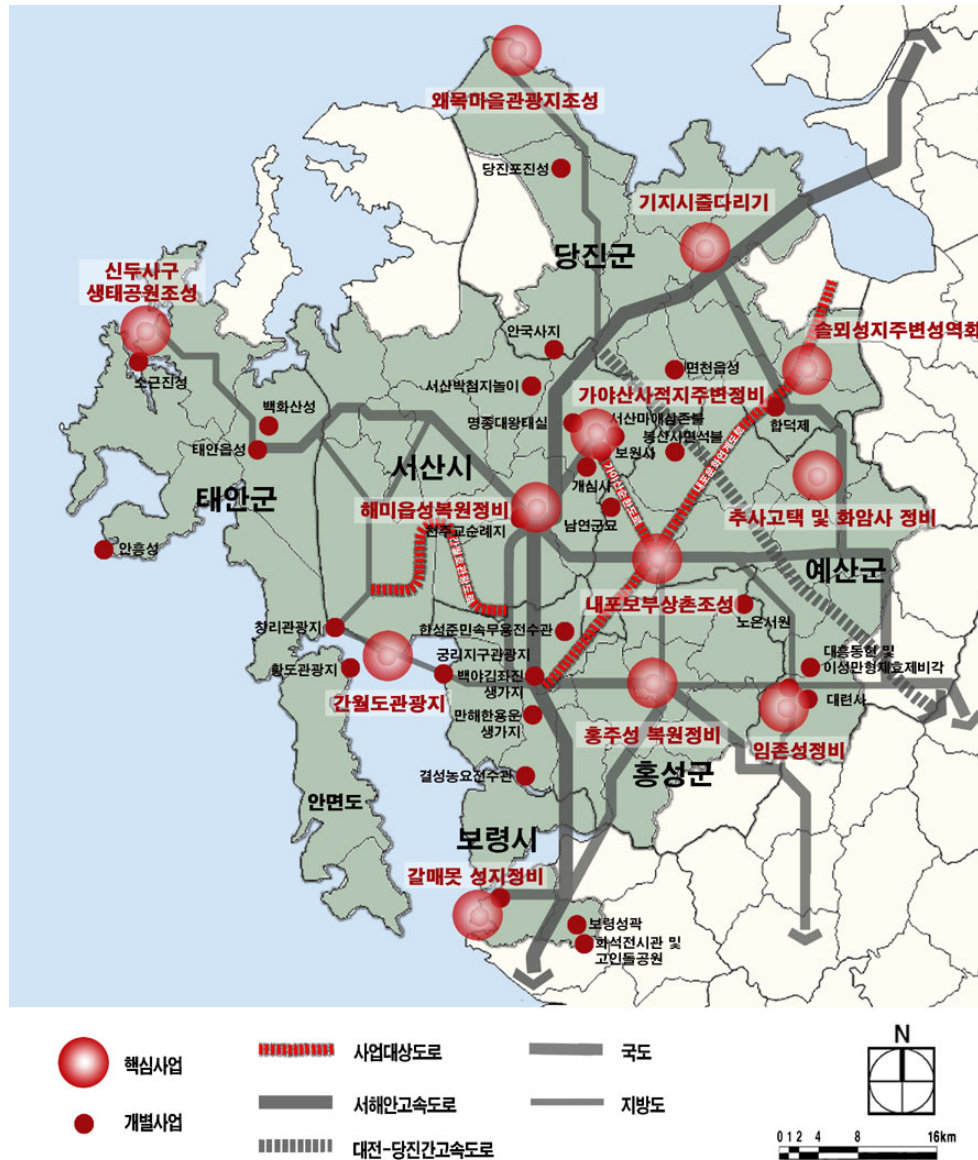
내포문화권 개발은 역사유적, 자연경관, 산업 자원 등의 자원분포별, 특성별로 4개 권역(가야산권, 내륙권, 해양권, 북부권)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과 12개의 핵심사업(홍주성, 내포보부상촌, 기지시 줄다리기 등)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내포지역을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불교문화의 전래지”이며, “천주교 성지”이고, “서민문화 전승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



하는 계기와 함께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문화권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 콘텐츠 기반구축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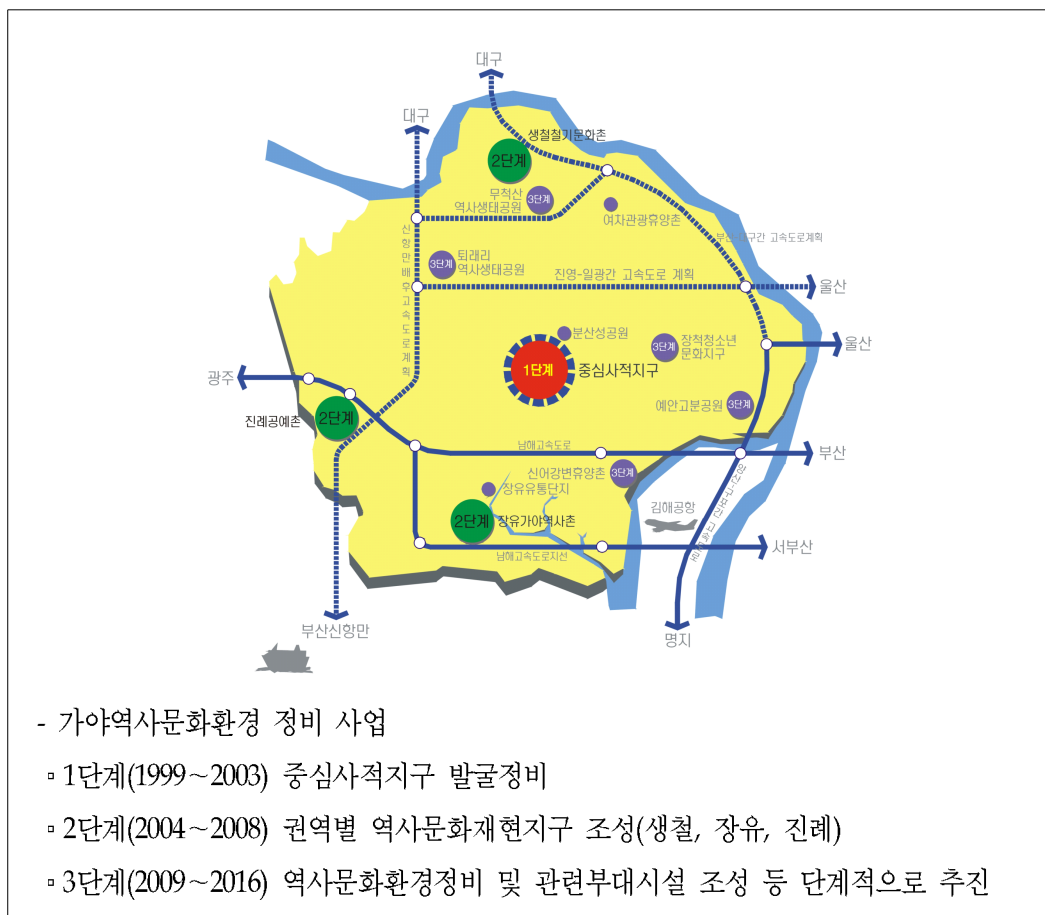


## (2) 가야의 고도 김해 -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김해시는 가야의 발상지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중심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야의 고도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김해시의 문화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것으로서 유적지 복원 및 정비로 구축되는 문화 기초 인프라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계하는 위치에 입지시키고, 유적과 연계된 구시가지의 주요 간선 도로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은 가야사 관련유적의 발굴·정비를 통하여 가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랜드플랜으로서 3단계로 구성된다.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으로 중심사적지구 발굴정비에 총1,297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가지 정비 및 도로정비 사업에 373억원을 연계 투자한다. 특히, 시가지 주요도로 조성 사업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김해시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도로변 도심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구도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별로 거점문화시설, 유적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면서 문화의 거리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꾀하며, 문화의 거리는 해반천과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 신시가지의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자연과 문화공간을 접하게 하여, 시설간을 연결하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역사공간 - 문화공간, 역사공간 - 역사공간, 정주공간 - 자연공간 - 역사문화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구도심과 도심의 거점문화공간으로 조성 계획이다.

〈표 8〉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1단계:1999~2003)

구 분		사업비(억원)	도입프로그램
합 계		1,297	
기초조사 및 연구		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야유적 발굴조사</li> <li>• 가야시대 공예, 건축, 생활상 연구</li> </ul>
관련부지매입		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지봉, 수로왕비릉 주변</li> <li>• 대성동고분, 봉황대 주변</li> </ul>
계획 제1지구 정비 (구지봉, 수로왕비릉)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지봉 정비 및 구지터널 확장</li> <li>• 역사경관공원 및 주차장 정비</li> </ul>
계획 제2지구 정비 (대성동고분, 수로왕릉)		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설운동장 정비, 가야의 숲 조성</li> <li>• 고분전시관 및 관련부대시설 조성</li> </ul>
계획 제3지구 정비 (봉황대, 회현리 패총)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야주거시설 및 가야고도궁 복원정비</li> <li>• 패총단면전시관 및 가야민속생활촌</li> </ul>
역사 문화 환경 기반 시설	조선조 읍성지구 정비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문, 종루 복원</li> <li>• 전통 상가 재현</li> </ul>
	역사문화환경지원시설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공원A: 멀티미디어관, 야외공연장</li> <li>• 테마공원B: 음악분수광장, 국악기전시</li> </ul>
	가야유적연결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보행가로 및 자전거도로망 정비</li> <li>• 금관로, 문화의 거리 정비 등</li> </ul>

자료 : 김해시,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계획, 1999

〈그림 3〉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계획



## 2) 시범도시형 조성 모델

### <특징>

- 자원특성상 도시내에 입지한 공익성이 강한 자원을 대상으로 함
- 공간범위상 행정구역상 시 단위로 계획상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함
- 사업목표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 (1) 문화수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사업

광주시에서는 도청·시청의 이전, 신도시 개발, 부도심의 발전에 따라 도심인구의 지속적 감소, 상권 이탈, 제조업 쇠퇴, 지가 하락, 도심환경 노후라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도심활성화를 위해 문화수도로서의 기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도심의 기능
  - 경제·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실질적 중심으로서 지방화·국제화·정보화에 부응하며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활동 공간
- 도심의 미래상
  - 국가적 중추기능을 담당하며 지식정보활동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도시문화, 깨끗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공간의 확보

사업 부문	사 업 수	소요예산(억원)	비율(%)
합 계		23,850.25	100.0
1 산업·경제진흥 부문	광주국제광박람회 외11개 사업	6,000.82	25.2
2 문화·관광진흥 부문	첨단문화산업단지 외11개 사업	3,555.00	14.9
3 주거환경 개선 부문	금동구역 도심재개발 외4개 사업	8,035.00	33.7
4 도심환경개선 부문	도심 주차장 확보 외17개 사업	1,911.43	8.0
5 도심사회문제개선 부문	세계민주인권 기념 외8개 사업	4,346.00	18.2



광주도심활성화를 위해서 5대 중점분야, 10대 시행전략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2조3,850억원에, 부문별로 산업·경제진흥 부문에 6,000억, 문화·관광진흥 부문에 3,555억, 주거환경개선 부문에 8,035억, 도심환경개선 부문에 1,911억, 도심사회문제개선에 4,3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 도심 내에 문화기반시설, 문화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수도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광주천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지구, 문화 콤플렉스, 인권특화거리, 문화체육시설, 문화산업단지를 입지시키고 이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문화수도 육성 마스터플랜에 의해 문화수도 육성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관련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사업도



(2) 문향, 예향, 절향의 도시 -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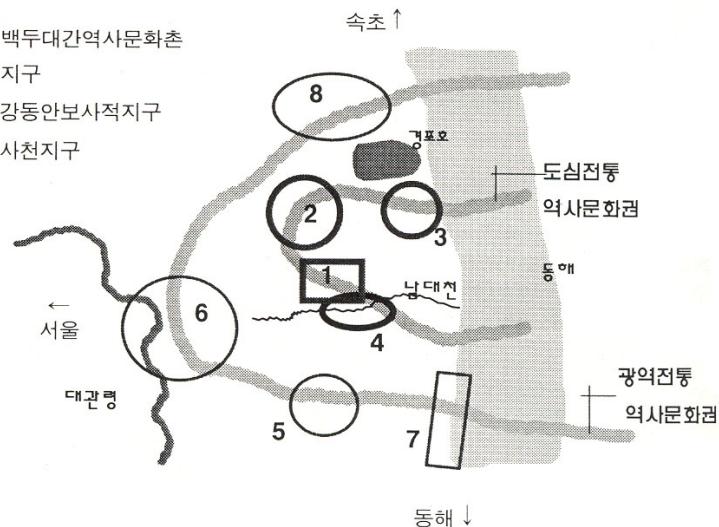
강릉문화를 특성화, 차별화하여 향토이미지를 개선·부각시킴으로서 국제화 도약기반을 마련을 위해 강릉에서는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 사업추진하고 있다.

- 강릉의 잠재력

- 역사적 : 선사,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풍부한 역사유적과 유물 분포 특히, 조선시대 유학 관련 대표적 자료들이 풍부하게 분포
- 문화적 : 문학,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제, 공연행사(단오제 등) 등이 계승
- 관광적 : 동해안 아름다운 바다(경포바다, 정동진바다 등), 해수욕장, 오대산 국립공원 대관령, 온천, 용평스키장 등 종합휴양관광지로서 뛰어난 잠재력 보유

이 계획은 강릉의 도시공간을 '도심전통역사공원문화권'과 '광역전통역사문화권'으로 체계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도심전통역사공원문화권에는 도심관아유적지구, 오죽헌·선교장지구, 초당지구, 단오장지구 등을 두고, 광역전통역사문화권에는 굴산사지지구, 백도대간역사문화촌지구, 강동안보사적지구, 사천지구 등을 두어 지구별 개발과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 |              |                |
|--------------|----------------|
| 1. 도심관아유적지구  | 6. 백도대간역사문화촌지구 |
| 2. 오죽헌·선교장지구 | 7. 강동안보사적지구    |
| 3. 초당지구      | 8. 사천지구        |
| 4. 단오장지구     |                |



8개지구 1개특별사업에 총 825억원을 투입하여 강릉관아, 읍성, 오죽헌, 단오타운 등을 정비 조성하며 전통문화연구원, 전통관문 등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각각 떨어져 있는 지구를 테마별, 일정별 네트워크화 함으로서 정비 및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사업 부문	사업 내용	소요예산(억원)	비고
합 계		856.06	
1 도심관아유적지구	강릉관아, 읍성, 향교 정비 등	110.49	
2 오죽헌·선교장지구	오죽헌, 선교장, 문화지원시설 등	39.15	
3 초당지구	허균, 허난설헌 문화공간 조성 등	58.99	
4 단오장 지구	단오타운, 남산공원, 역사가로 등	105.18	
5 굴산사지구	범일국사기념, 교육체험공간 등	50.13	
6 백두대간역사문화지구	전통체험, 오봉서원, 대공산성 등	245.26	
7 강동안보사적지구	잠수함침투지, 6·25남침비 등	81.60	
8 사천지구	강릉전통문화, 혼례, 가옥 재현 등	131.38	
9 특별사업	전통문화연구원, 강릉전통관문 등	33.88	

답사 코스	코스지
A 역사탐방코스	대관령박물관→오죽헌/선교장→경포→참소리박물관→도심관아/단오장→사천(박물관,전시관)
B 강릉탐방코스	백두대간역사문화촌→오죽헌/선교장→사천→경포→초당→도심관아/단오장
C 안보사적 탐방코스	정동진→강동안보→오죽헌/선교장→(경포→초당→도심관아)
D 수학여행코스	오죽헌/선교장→사천→경포→초당→(참소리박물관)→굴산사지→강동안보→정동진→명주군왕릉 및 보현사 일대→대관령박물관
E 강릉맛보기 코스	백두대간역사문화촌→오죽헌/선교장→도심관아/단오장→경포
F 가족동반 코스	삼산지구→강릉온천→사천→도심관아/단오장→강동안보→정동진→오죽헌/선교장→(경포)→초당→대관령박물관



### 3) 지구단위형 조성 모델

#### <특징>

- 자원특성상 지역내에 입지한 개별 역사자원 또는 핵심 문화자원을 대상
- 공간범위상 생활권과 연계된 단지 또는 지구를 대상
- 사업목표상 문화자원의 정비와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 (1) 전통 주거문화의 보존모델, '전주한옥마을' - 전주한옥마을 조성 사업

전주시는 향후 50년간 도시성장을 견인할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문화산업 직접지구, 테크노파크, 기계산업테크노밸리 등의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002년 월드컵 대회 개최에 맞추어 추진된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기존주택지역의 공동화와 슬럼화 되고 있는 도시문제의 해결과 거점문화공간의 확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풍남동 일원 (구)한옥보존지구
- 면 적 : 275,511㎡ (83,342평)
- 사업기간 : 1단계 1999 ~ 2002, 2단계 2003년 이후
- 총사업비 : 750억원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별, 지구별로 추진하는데 한옥 신축 및 수리와 주변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거리를 역사·문화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후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매달 1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5개 여행사들이 매주 20~25명의 관광객들을 보내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일본, 중국 등)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① 전통문화구역 정비

- 한옥 신축 및 수리, 담장·대문·골목길 정비
- 전통문화지역 도시기반시설 및 주차장 정비

②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

- 태조로, 최명희 1길, 가리내길 등을 역사·문화체험, 판매, 전통음식거리로 조성

③ 문화시설건립

-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명품관
- 전통문화센터, 전주한의학박물관, 민속장터 조성

전주한옥마을의 성공요소는 무엇보다 기존 민속촌이나 단순한 유적지와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생활하는 ‘살림집’촌을 정비하여 자원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차별화 전략에 성공하였다.

〈그림 5〉 국제적 관광명소로 성장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자료 : <http://tour.jeonju.go.kr/>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옥마을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서, 역사·문화공간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한옥군을 블록별, 가로별로 정비하고 사업별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특화사업,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역사·문화유적인 한옥군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존상태가 양호한 전통한옥지구에는 전통골목길을 조성하고 전통민박, 체험·문화시설을 유치해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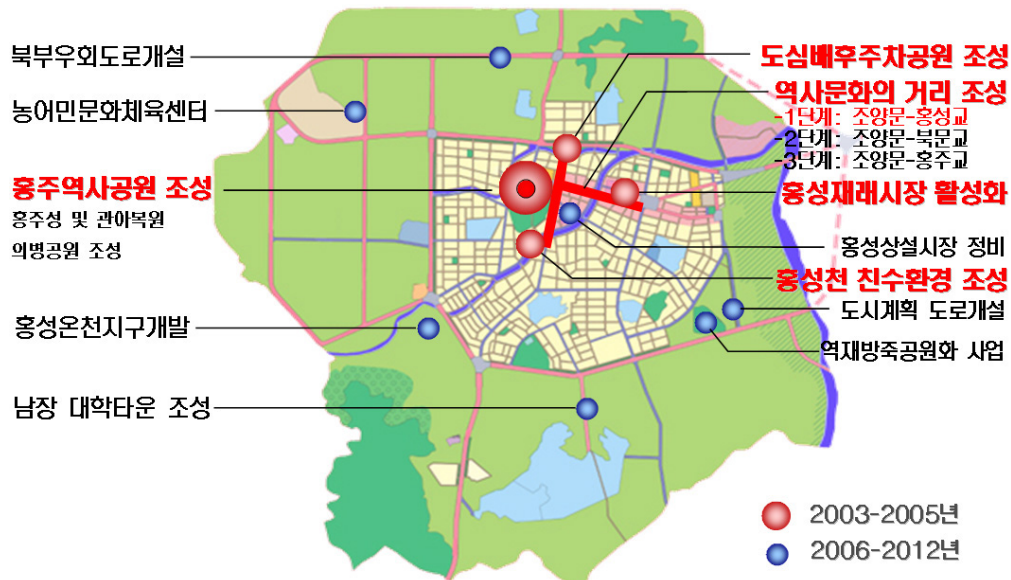
또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서예산업화센터, 전통장인학교, 천년한지 개발 등 94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산업 육성함으로서 관련산업에 파급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2) 내포의 중심지, 홍주 - 홍성읍 종합육성사업

홍성은 과거 충청 우도의 중심도시로서 신라 말부터 20세기까지 주변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한 고을<sup>13)</sup>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의 배제 및 해로에서 육로로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하여 군세가 약해졌으며 특히, 기존 홍성 중심시가지 주변 및 외곽으로의 개발확산은 중심상권(재래·상설시장, 중심상가 등)의 쇠퇴를 불러왔으며, 교통소통문제 및 택지 부족과 공공기관의 이전(법원검찰청, 군청 등)으로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장기적으로 중심상권의 공동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중심지에 위치한 역사문화자산(홍주성, 관아 등)<sup>14)</sup>들을 활용하여 도심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재가 주민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구상을 착수하게 되었다.



13) 홍성군, 홍성읍 종합육성계획, 2003.4, p139~p140

14) 홍주성 및 관아의 복원은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의 정비이지만 유적이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업파급효과가 큼

홍수성을 중심으로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03년 홍성읍 종합육성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수립과 행정자치부 지원 소도읍으로 선정됨으로서 사업추진기반 확보하였다.

총 10개년 사업 중에서 초기 3개년에 총205억원을 역사문화공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서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홍주성 및 관아복원 계획 수립과 도심배후주차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거점 문화공간의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를 통하여 문화공간과 함께 시장을 함께 정비함으로서 지역의 상업 활성화 촉진하고 역사문화거리와 연계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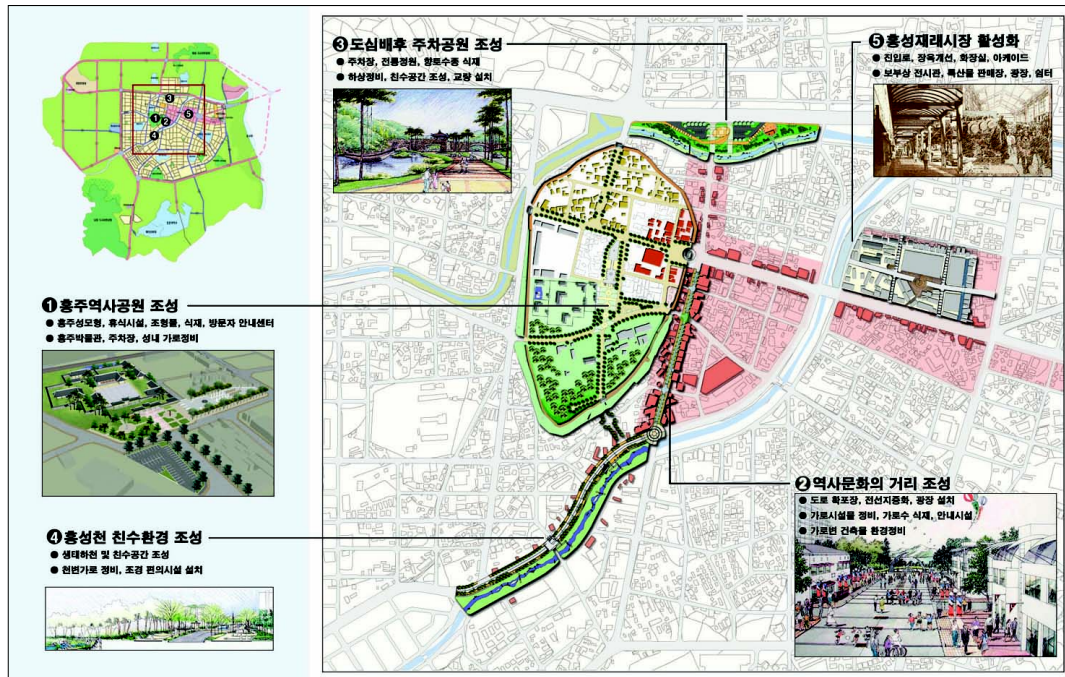
〈표 9〉 초기 3개년간 육성사업계획(2003-2005)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홍주역사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주성 복원사업계획</li> <li>· 홍주역사공원, 주차장 조성</li> <li>· 성내가로조성, 방문자 센터</li> </ul>	68억원
역사문화의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시설물 정비, 식재</li> <li>· 전선 지중화 사업</li> <li>· 도로 및 인도 확충 및 포장</li> </ul>	30억원
도심배후 주차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및 근린공원조성</li> <li>· 친수공간 정비</li> <li>· 교량설치 등</li> </ul>	44억원
홍성천 친수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수변공간 조성</li> <li>· 가로 정비</li> </ul>	25억원
홍성 재래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옥개선사업 - 간판, 아케이드 등</li> <li>· 어시장 바닥 정비</li> <li>· 진입 및 소방 도로개설</li> <li>· 보부상 및 특산품 판매전시장 설치</li> </ul>	38억원

자료: 홍성군, 홍성읍 종합육성계획, 2003.4

역사공간 홍주성과 상업공간인 시장을 연결하는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하여 역사·도시자원을 선적, 면적으로 연계함으로서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추진하는 것은, 외부관광객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홍주역사공원과 연결시킴으로서 여가·휴식의 장 역할과 함께 지역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홍성 중심시가지의 역사문화공간과 상업공간의 연계



## 제 4 장 문화공간 조성 추진 전략

### 1. 기본방향

현재의 문화공간 조성은 아직도 개별 문화자원의 보존, 개별 시설 위주의 공급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공간의 부재는 지역문화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역사적 자산에 기반을 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유자산과 이미지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타지방의 것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에 대한 문화적 특성,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의 생활권과 연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문화자산과 문화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문화이미지가 형성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이미지 강화전략, 문화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이미지 창출전략,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문화이미지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조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초기에 수익확보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문화산업인 경우에 금융과 행정지원으로 가능하지만, 문화공간은 조성 후에 이를 통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역사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공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전반에 걸쳐 경제적 파급 및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성 이후에 문화공간의 활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함께

지방기업, 상인, 주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 2. 추진전략

### 1) 지역 문화자산 발굴과 특화

#### (1) 지역문화자산 만들기

역사문화자산은 선조들의 흔적이며 후세들을 위한 자산임을 인식하며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역사자산 만들기를 추진한다.

- 아무리 우수한 문화자원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관심이 없는 자원은 소멸, 반면 가치는 뛰어나지 않아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에 의해 유·무형의 자원은 재창조됨
- 이 부분에 있어 향토사학자와 공공의 역할의 중요, 관계공무원, 학자, 전문가 등은 학술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자원을 발굴 추진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한 역사자산의 만들기는 단순한 건축적, 위치적인 측면이 아닌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시대별로 분류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지역별 문화유적분포지도는 평면적, 서술적인 접근으로 역사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는 한계

#### (2) 문화공간에 대한 특화방향 설정

##### ① 장소실사를 통한 문화적 잠재력 파악

문화자산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황 및 문화적 측면에서의 강점·약점·기회·위협 등의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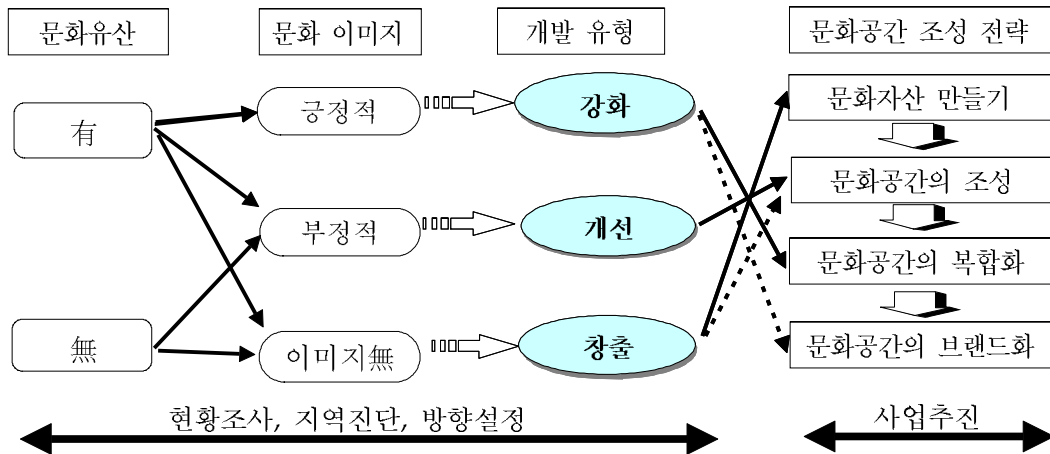
- 문화자산과 함께 지역경제, 인구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역간 경쟁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② 지역 문화공간의 특화방향 설정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공간의 특화방향을 설정한다.

- 특화방향의 설정은 문화공간 조성의 전단계 작업으로서 문화유산, 문화이미지에 따라 개발유형을 선정하고 공간 조성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 2) 추진체계의 구축

### (1) 추진주체의 구성

문화공간의 공공재적 성격과 공공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초기 조성단계에 있어서 추진주체의 구성과 방향설정, 주민협의 도출,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되, 중기 이후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 주민/단체/기업, 공동체 각 부문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공

지방정부에서는 초기 지역문화 가치, 문화정책,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민, 단체, 기업 등에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 계획수립, 공공기반환경 조성, 법제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② 주민/단체/기업

지역의 낙후된 문화환경, 시장성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 등의 참여는 많은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지방연고기업, 지역중소상인,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 수립, 축제·이벤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의성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 ③ 공동체 구성

국내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심 문화공간의 조성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업의 투자, 공공의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2) 프로그램의 수립

#### ① 문화공간과 주변공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문화공간과 주변공간이 연계된 종합 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통하여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사업타당성의 검토

수요, 재원조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규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문화공간 조성과 마케팅 도입

### (1) 문화공간 조성

#### ① 지역생활권 연계한 기능·용도의 복합화

보존의 원칙에서 유·무형 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의 수립한다.

- 잠재력이 높은 유·무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의 거리 및 문화공원 조성하고, 교류 및 지역축제의 장으로서 역사광장의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및 공간계획의 수립

- 문화공간에 보행환경의 조성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문화공간의 지역사회화 추진하며,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공간 내에는 보행우선 지구 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

역사·문화공간과 기존 도심에 입지한 교육, 상업, 산업, 관광, 체육기능의 복합화 추진한다.

- 인위적인 기능 복합화 보다는 기존의 환경을 정비하는 수법을 통하는 방법이 도시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

- 도심 내에 입지한 유형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의 축,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등을 도입 하여 기능의 연계화를 추진하고 접근성을 개선

-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통마을, 한옥마을은 인위적으로 정형화된 민속촌이나 다른 한옥촌에서 느낄 수 없는 생동감·현장감이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도심 내에 입지 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도심의 상업, 교육, 관광기능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개발 방안 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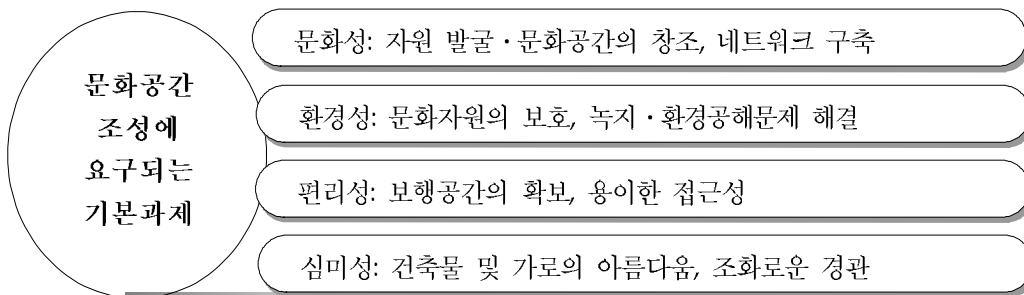
대규모 시설의 입지는 많은 투자비용과 문화자원에 대한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공원 등의 자연녹지를 확보하여 연계한다.

- 생태적 녹지 어메니티 공간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공간과 연계시 시너지 효과가 큼

## ② 상징성과 매력성 확보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계획수법 및 참신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 - 심미성

- 역사공간의 성격상 과거 디자인에 얽매이다 보면 자칫 공간의 흥미를 떨어뜨림, 전통을 계승하며 이미지가 반영된 참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 추진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친밀감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하여 문화자원의 보전과 문화공간으로의 매력성 확보한다.

- 주민이 거주하는 곳,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입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환경 조성은 그 혜택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도심 내의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입지한 문화유적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역사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역사자원의 왜소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2) 장소마케팅 도입

### ① 문화인력기반 구축

### ② 문화마케팅의 도입과 행사·이벤트 활성화

강력한 지역 문화공간 브랜드는 관광수요의 창출, 인구유입 등 도심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의 애착심 증대, 이미지향상, 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등 다양한 효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문화 이미지를 전달하며 상품화된 강력한 문화공간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전통적 마케팅과 차별화된 문화마케팅 추진을 통한 공간 브랜드화 한다.

〈표 10〉 전통적 마케팅과 문화마케팅의 차이

마케팅 전략(4P)	전통적 마케팅	문화마케팅
Product(제품)	편익과 기능을 강조	이미지, 환타지, 느낌강조
Price(가격)	합리적인 가격 또는 할인가 적용	문화 프리미엄 부가
Place(장소)	대형, 전문 유통 매장	문화공간 등의 탈유통
Promotion(홍보)	미디어 광고, 입소문 등	문화이벤트, 직접체험 등

주: 삼성경제연구소,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2002.10.30, pp3

문화마케팅에 Co-Branding, Ingredient Branding, Co-Marketing의 전략적 도입을 추진한다.

- Co-Branding : 역사문화공간, 자연공간, 산업공간 등의 공동 브랜드화
- Ingredient Branding : 문화공간과 도시공간 간의 브랜드화
- Co-Marketing : 문화공간의 장소성과 상품을 연계한 공동마케팅

## 제 5 장 결론 및 정책건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여가시간과 생활의 증대, 주5일근무제 실시,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는 문화와 문화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확대 및 접근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와 분권화는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공간의 조성은 부처별, 공급자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지역 특성별, 수요자 위주의 공급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생활권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공간 자체가 마케팅의 대상으로서 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중·장기 계획적 접근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 시군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정책적 측면

#### 1) 문화 중심의 도시정책의 수립

살고 싶은 도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공간은 환경친화적 공간, 편리한 공간, 심미적 공간 등 다른 어떠한 공간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북유럽의 환경친화적인 도시, 공공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도시, 아름답게 디자인된 도시라 할지라도 문화적 활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음을 인식할 때 문화는 도시 경쟁력의 요체이다.

이를 위해, 문화적·수요자적 측면에서 문화정책과 공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슬로건 위주의 브랜드 개발은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문화의 상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전통, 이미지, 공간 등이 통합된 문화정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2) 수요자 위주의 문화공간 조성 정책 수립

구심성이 미흡한 공급자 위주의 문화공간 공급은 조성 후 시설의 활용 미흡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관리부담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문화공간 조성은 수요자 위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것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 문화공간 조성의 요체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형, 주민참여형 문화공간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주민들에게 불러 일으키고,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사회심리적 안정요인이 되며, 한편 참여를 통한 학습 기회의 제공과 자원의 공동 부담 및 향토자원관리, 책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주민참여는 개발정책결정에 앞서 선택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 2. 법제도적 측면

### 1) 시범 문화공간 조성제도의 도입

문화 분권, 접근성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시군에 적합한 시범 문화공간형 조성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시범 문화공간의 대상
  - 사업목표 : 문화자원의 정비와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 공간범위 : 생활권과 연계된 단지 또는 지구를 대상
  - 사업대상 : 지역 내에 입지한 핵심 문화자원을 대상
  - 추진주체 : 지자체(사업추진), 중앙정부(지원), 지역주민(관리운영)

## 2)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현재 당해 문화재에 대해 한정되고 있는 문화재청의 업무를 확대하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형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형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재 업무와 도시 업무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킴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이 지역주민의 삶에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3. 계획적 측면

### 1) 다양한 지구단위형 문화공간 계획기법 · 모델 개발과 활성화

현재의 계획모델은 문화권형, 시범도시형, 지구단위형 등이 있으며 지역자치단체에 적합한 지구단위형 문화공간 계획기법 · 모델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화권형은 공간적으로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조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며, 시범도시형은 도시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지구단위형은 지방의 해당시군의 일정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요사업비는 수백억원 단위로서 도 · 시 · 군의 상호협력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배분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현행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문화환경개선형 지구단위계획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일단의 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일체적 개발이 가능하나, 비도시 지역 난개발과 문화환경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 2)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칭 충남문화자원 분포지도” 제작

전통·문화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권역도에 의해 광역적 측면에서의 특성파악과 이와 연계하여 지역별 역사자산 활용형 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충청권을 백제문화와 내륙휴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는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등으로 구분하는 등 지역별 문화적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이며,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모호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그리고 계획가가 지역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별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문화지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문화지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종이지도 또는 단순 그래픽 위주의 전산도면이 아닌 속성값을 가지는 전자지도(electronic map)<sup>15)</sup>로 제작하여 문화유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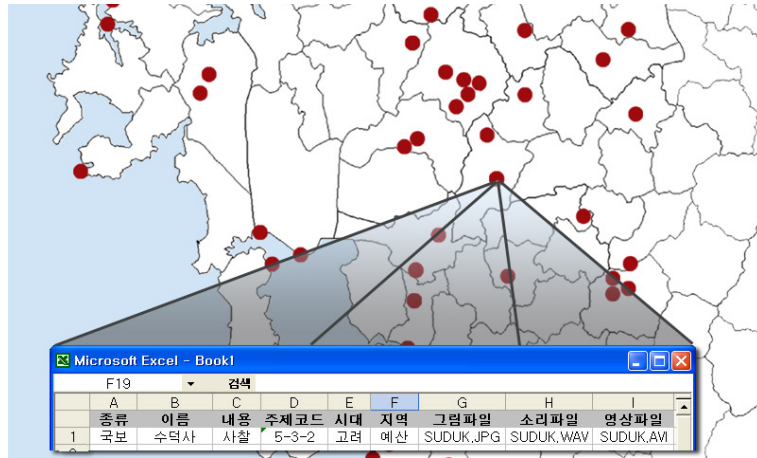
- 전자지도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음

- ① 문화유적의 다양하고 방대한 속성자료(주제, 시대, 지정유형, 지역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표현이 가능
- ② 다양한 목적의 사용자 요구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③ 특정지역의 문화자원 정보에 대하여 소리, 영상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
- ④ 문화컨텐츠 상품제작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15) 전자지도는 기존의 종이지도와 비교하여 지도의 재생산, 자료의 갱신,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의 검색, 다양한 종류의 분석과 주제도 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문화전자지도는 자원의 위치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 3)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시·군별 문화발전계획 수립

문화분권화, 신행정수도의 입지, 지역특성과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문화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1991, 1997, 2000), 전남(1992), 서울시(1994), 경기도(1998), 인천시(1998), 충북(1999), 양평군(1999), 전북(2000), 전주시(2001) 등에서 시·도의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나 충청남도에서는 2004년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시·군차원에서의 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시·군별 문화발전계획 수립의 내용적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진흥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전략 제시

나. 부문별 육성방안 제시

- ① 전통·문화·예술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자원화 방안
- ② 문화기반 및 문화복지 확충 및 운영방안
- ③ 문화산업기반 구축 및 육성방안
- ④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진흥 및 산업육성 방안

## 〈 참고 문헌 〉

- 이정식·김용웅(2001), “세계화와 지역발전”, 도서출판 한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이제는 지역이다 -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찾아서”, 디자인 모브
- 박용남지음(2003), “꿈의도시 꾸리찌바”, 이후
- 이해준(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 김원(2001), “문화가 지역을 살리네”, 한국자치개발연구원
- 김문환(1997),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大河直躬編, 都市の歴史とまちづくり, 學藝出版社, 1997.6.20
- 삼성경제연구소(2004),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 안양시(2003),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
- 광주광역시·국토연구원(2003),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심문화산업 육성방안”
- 삼성경제연구소(2003),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문화향수실태조사”
- 삼성경제연구소(2002),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 산업연구원(2001),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 국토연구원(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대구경북개발연구원(2001), “대구의 역사문화형 테마파크 개발방향”, 서인원
- 충남발전연구원(2001),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및 경관행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정연
- 광주광역시, 국토연구원(2003),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
- 강릉시(2000),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계획”
- 국토연구원(2000), “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 -도시마케팅적 접근을 중심으로-”
- 부산발전연구원(1997), “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방향”, 황영우, 이광국, 김홍관, 정선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 구자훈, 이희정, 한기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주민참여형 상업지 정비수법 개발”, 정희윤, 김도년  
농림부(200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2),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김복영(1996), “김해시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조성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The Revitalization of Bilbao from Infrastructures to Values, Alfonso Martinez(Spain)

<http://www.new-museum.go.kr/>

<http://architectsonline.com/publications/bilbao>

[http://www.unesco.org/courier/1998\\_09/uk/signes/txt1.htm](http://www.unesco.org/courier/1998_09/uk/signes/txt1.htm) - Bilbao : the Guggenheim effect

<http://www.theatlantic.com/issues>

## 〈 부록 〉

# 도시의 역사와 거리 만들기 (都市の歴史とまちづくり)

오카와 나옴이(大河直躬)

學藝出版社

본 부록은 해외의 문화공간 조성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오카와 나옴이가 쓴 도시의 역사와 거리만들기를 번역한 자료로서 본 연구자료로서 수록하였다.

# 목 차

## 1. 거리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자산의 목록만들기를 진행시키자.

1.1 이미 시작된 목록 만들기 .....	55
1.2 역사를 말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	56
1.3 무엇으로부터 목록 만들기를 시작할 것인가 .....	57
1.4 거리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자산의 분류표 .....	58
1.5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계가 있는 역사적 자산의 분류표 .....	59
1.6 역사적 자산의 정보 수집 .....	62
1.7 마을 걷기와 분포지도 만들기 .....	62
1.8 역사적 자산들의 상호관계를 보는 시각 .....	63
1.9 거리 만들기에 있어서 역사적 자산의 평가 .....	64

## 2. 도시경관조례로 보는 역사적 자산의 계승과 거리만들기

2.1 역사적 환경 보전의 움직임 .....	67
2.2 역사적 경관의 보전으로부터 도시경관의 창출로 .....	72
2.3 도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서의 역사적 건조물 .....	76
2.4 거리 만들기의 소재로서의 역사적 건조물 .....	80
2.5 종합정리 .....	81

## 3.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과 정비 - 중국과 일본의 비교 -

3.1 중국의 역사문화도시제도 .....	83
3.2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계획 .....	84
3.3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적 배경의 비교 .....	91
3.4 중국과 일본의 보존·정비의 진행방식 비교 .....	94
3.5 맺는 글 .....	96

#### 4. 영국의 도시계획과 역사적 자산

4.1 등록건조물의 역사 .....	98
4.2 등록건조물의 장치[구조,기구,열개,짜임새,방법,절차,계획] .....	99
4.3 등록건조물을 보전하려는 움직임 .....	102
4.4 기타 경관정비의 장치들 .....	104
4.5 역사적 자산을 계승하는 도시계획 .....	105

#### 5. 이탈리아 거리 만들기에서의 새로운 시도

5.1 볼로냐의 실험 .....	108
5.2 매력을 되찾은 중심부 .....	109
5.3 레스타우로 기술의 전개 .....	110
5.4 남부 이탈리아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	112
5.5 주변지역을 향한 관심의 증대 .....	114
5.6 새로 시작된 풍경계획 .....	115

# 도시의 역사와 거리 만들기

## 역사를 말해주는 것과 거리 만들기

우리들이 사는 도시나 마을에는, 많은 경우에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 중 성터, 절 등은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들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다. 옛 가옥들이 즐비한 거리나 석축을 쌓은 선착장은, 과거 그 고장[마을/거리]의 영광을 전해주며, 아득히 보이는 산이나 언덕의 푸름은 오랜 시대에 걸쳐 사람들이 가꾸어 온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역사를 말해주던 이런 것들이, 1960년대에 시작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거리 가꾸기의 과정에서 대량으로 사라지고 만다. 경제성장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이 역사를 말해주는 것들의 가치보다 훨씬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곧 오랫동안 익숙하게 벗 삼아 왔던 환경이 사라지는데 따른 위기감을 느낀 각지의 주민들이, 그것들을 지키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 역사적 환경의 가치

우리 주위에서 역사를 말해주는 것들 전체를 역사적 환경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이 역사적 환경이란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 역사적 환경을 구성하는 개개의 것들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는, 그 물건[대상]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음의 세 가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 그 땅에서 자라거나 오래 살아온 경험에 기반하는, 개인들의 정신적 가치이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도시나 촌락, 기타의 지역공동체의 정신적 가치이다. 이는 주민들 서로를 묶어주는 상징이 되어 자라게 된다.

세 번째는, 이것들에 비하여 현실성이 강한 가치이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만으로 만들어진 거리보다 새로운 것과 옛 것이 공존하는 거리에서 즐거움이나 정감을

느낀다. 오래된 건물이나 길 한 쪽의 도로표지 등, 여러 가지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능을 지니며, 그로부터 즐거움이나 정감이 생겨나는 것이리라고 생각된다.

### 새로운 거리를 만들려는 시도의 시작

이와 같은 반성으로부터, 1980년대 이후 ‘역사·풍토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거리 만들기’나 ‘정들기 쉬운 거리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많은 지방자치체에 의해서 경관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중에 역사적 환경의 보존을 포함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또한 옛 건축을 복원하여 새로운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각지에서 증가하고 있다.

도시나 촌락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환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과 같은 발전방식은, 환경이 지니는 정신적 가치와 그 곳에서 생활하는 즐거움을 빼앗게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새로운 거리 만들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즉, 역사적 환경이 갖는 여러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과 자연환경의 보전, 주민 안전의 확보, 편리함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 여러 요건과의 조화를 기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새로운 시도들이 일본 각지 또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여러모로 단편적이고 이제 막 시작된 것들에 불과하다. 역사적 환경을 어떤 개념이나 가치기준으로 포착하는가 하는 기초적 연구라든가, 도시의 보전과 개발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가 등의 연구도 불충분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건축사학회(건축의 역사 연구자의 학회)는 1994년 4월에 ‘도시 역사 계승과 거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일본사·도시계획·건축사 세 분야의 연구자와 행정담당자를 초빙하여 토론을 열었다. 이 책은 그 기록에, 가치기준이나 기본원리 등을 다룬 총론적인 논문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제도 등에 관한 해설을 덧붙인 것들이다.

이와 같은 분야의 학문적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따라서 미비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각 시읍면에서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장래 그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까지 말한 문제들의 내용이나 실례를 꼭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간행한다. 또한 여러 분들의 기탄 없는 비판을 받아 역사를 살린 거리 만들기 제 분야에 걸친 문제의 탐구를 더욱 진척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아울러 밝힌다.

## 1. 거리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자산의 목록만들기를 진행시키자.

### 1.1 이미 시작된 목록 만들기

도시의 역사를 계승하는 거리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우선,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목록을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노력은 향토사 자료나 민속자료 수집의 분야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주로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매우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치바(千葉)현 사와라(佐原)시에서는 1992년에 주민조직인 ‘오노(小野)강과 사와라의 거리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역사적인 거리의 상가와 가옥 454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1984년 도쿄도 분쿄(文京)구의 여성 세 명에 의해 발간된 계간지역잡지 “타니나카·네즈·센다기(谷中・根津・千駄木)”는, 유서 깊은 점포, 지역 연고의 작가, 물 환경, 절, 묘지 등 지역의 역사를 말해주는 다양한 것들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10년간 계속하고 있다.

풍경에 관해서는, 나가노(長野)현 스자카(須坂)시에 사는 두 사람의 교사가 시내나 주변 민가와 거리의 스케치와 해설을 1985년부터 4년간 100회에 걸쳐 지방지에 연재한 것이 좋은 예이다. 주민이 자기 거리의 가치에 눈뜨고 ‘신슈 스자카(信州須坂) 거리의 모임’을 결성한 것이 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다.

위의 예들은 모두 주민 스스로 만든 것이지만, 시읍면 등 행정 쪽에서도 역사적 건물 등의 목록 만들기를 하는 예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 세타가야(世田谷)구 교육위원회에서는 1978년 이후 구내의 민가·근대주택·근대공공건축·절 및 신사의 건축에 대한 세세한 조사를 하고 이에 기반한 목록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속속 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나 목록 만들기의 목적은, 그 가운데에서 특히 뛰어난 것을 골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민중사’와 같은 특정 사관에 의한 역사의 편찬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선, 주변에 있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들을 망라하여 조사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이 공통된 목적인 것이다. 그러한 작업이 각지에서 행해진다는 일 자체가, 이미 새로운 거리 만들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 1.2 역사를 말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역사를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거기에 포함된 분야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의 총체를 ‘역사적 유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 유산은 영어의 heritage(유산 또는 역사적 유산을 의미)에 거의 대응하는 말이다. 영어에서는 이외에 cultural heritage(문화유산)나 cultural heritage resources(문화유산자원 또는 자산)도 사용되며, 또한 나라에 따라 사용법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제2차 대전 후, 건조물, 회화, 사적, 천연기념물, 민속예능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적 소산(所産)’을 전부 포함하는 말로서 ‘문화재’(영어의 cultural property에 대응)가 새로이 쓰이게 된다.

최근에는 자치성(自治省)의 ‘고향 자원’, 나하(那覇)시의 ‘도시경관자원’, 도쿄도 토시마(豊島)구의 ‘문화재자원’과 같이 독자적인 말을 고안하여 사용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역사적 자산’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모두가 이제까지와 다른 목표나 역할을 부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통된 말이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본 글에서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역사적 자산’을 사용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은 보존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현재의 거리 만들기에서 되살려낼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사용되는 ‘문화재’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의도도 있다.

다음으로 ‘역사적 자산’의 내용에 관하여 주의할 내용이 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명도를 갖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과 더불어 우리 주위의 평범한 것이나 작은 것들도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물론 시대가 오래될수록 중요한 것 또한 아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각지에서 발굴되는 고고학적 유적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들이 사는 도시의 지하에는 아직 빛을 보지 않은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도시의 토지구획과 같은 것도 눈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것은 ‘도시경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주 잊혀지는 점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역사적 자산’은 개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상호간에, 또는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생활관습 등과의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마치 직물이 짜여지듯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하고 있다.

### 1.3 무엇으로부터 목록 만들기를 시작할 것인가

‘역사적 자산’의 분야는 매우 넓고 또 도시나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의 특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목록을 만들기 시작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이나 그룹이라면, 관심 있는 분야나 익숙한 분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한 종류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은 것은 수 년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 되어간 예들을 보면, 앞서 거론한 “타니나카·센다기·네즈”의 경우처럼 그 분야나 종류가 마치 퍼지는 원과 같이 점차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가의 건물을 조사해나가다 보면, 거리의 조직도 조사하고 싶어진다. 또한 나아가 도시 전체에도 시선이 향하게 된다. 먼저, ‘역사적 자산’의 존재방식을 직물로 예를 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접한 분야이며, 씨실을 따라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제(마츠리[祭り]: 제일[祭日])의 포장마차(야타이[屋台])나 신여(미코시[神輿]: 신위를 모신 가마)의 조사로부터 축제의 예능으로, 나아가 축제 포장마차나 신여가 순회하는 거리의 조사로 나아가는 식으로, 아주 다른 분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낱실을 따라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와 같이 분야를 넓혀간 최근의 뛰어난 조사의 예로는, “마을 기온(祇園)축제 살이 - 도시 제례의 시대”(타니 나오키(谷直樹)·마스이 세이야(増井正哉)편, 1994년)가 있다. 유명한 교토(京都)의 기온 축제는 이제까지 역사학과 민속학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조사는 그 범위를 축제의 공간이 되는 정회소(cf. 정회는 읍 또는 마을[町]의 의회)와 상가의 건물이나, 저녁 축제 때 상가에서 행해지는 흥미로운 민속인 ‘병풍꾸미기’ 등의 분야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노후화한 정회소의 개축 안을 대신하는 것으로써 그 복원·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실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목록 만들기의 원을 넓혀나가는 일은 인재가 풍부하다든지 지원자가 많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 자세는 필요하다.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다른 집단에 조사를 권하면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학자들 사이에 조사지역을 기득권과 같이 싸고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또한 최근 거리의 조사를 뒤쫓듯이 자연환경의 조사를 행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본에서는 이제까지 불가사의하게도 역사적 환경의 보존운동과 자연환경의 보존운동은 서로 연대가 없었다.

#### 1.4 거리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자산의 분류표

‘거리 만들기’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것이나 경제활동 등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과 관계가 있는 ‘역사적 자산’의 종류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것들을 분류해 놓는 일은 중요하다.

그 목적은 이제부터 거리 만들기를 실행해나갈 때에 치명적인 누락에 의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유적이 파괴되었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몰랐다’라는 변명을 자주 들었지만,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앞서 목록 만들기를 ‘개인이나 그룹이라면 관심 있는 분야나 익숙한 분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한 바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체를 고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의 거리 만들기에서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 것이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는, '개발계획' '재개발계획'으로 불리는 대규모의 도시계획·건축적인 활동이 일본의 도시 풍경과 일상생활을 커다랗게 바꾸어 놓았다.

도시계획과 건축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은, 토지, 도로, 건물과 같은, 형태가 있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된다. 도시계획과 건축활동에 의해서 지금까지 존재한 개개의 토지, 도로, 건축 등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구성해내는 공간이나 풍경도 변경되어진다.

이러한 도시계획·건축활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는 '역사적 자산'의 분류해본다. 대상으로서는 도시계획과 건축활동의 직접적인 대상 또는 그것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역사적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분야상의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형태가 있는 것이라도 언제나 마음의 반응과 같은 형태가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므로 분리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확실히 사실 자체로서는 그러하지만, 목록만들기는 일종의 정리작업이다. 모든 것들을 한데 뭉뚱그려버리면 목록만들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만다. 따라서, 형태가 있는 것과 형태가 없는 것, 형태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사적 자산'의 목록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5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계가 있는 역사적 자산의 분류표

한편 도시계획과 건축활동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는 '역사적 자산'의 분야나 종류를 헤아리는 일도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도 거의 없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나 편리함의 추구하고 같은 것이 연구상으로도 훨씬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치단체의 '고향자원'의 활용상황, 더불어 역사적 건조물(landmark)의 조사(1989년)나 건설성의 '역사적 자산'의 보전·활용방안의 조사(1990년)에서는, 물론 목적은 약간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조사대상분류표가 사용되고 있어서 참고로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것은 산림 하천부지와 같은 '자연사물'과 생활수로·집회소와 같은 '생활기반시

설'등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개개의 사례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다.

건설성의 것은 먼저 큰 분류로서 '종래로부터 문화재로 평가되었던 것'과 '종래에는 문화재로서의 평가가 낮았거나 평가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건조물·사적의 분류를 따르게 되지만, 후자는 '길이나 가도에 의해 형성된 공간 등'이나 '연속적 자연'(연속된 산이나 구릉지, ..연봉(連峰))과 같은 사례를 채택하고 있어서 건설성다운 궁리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성의 조사분류표가, 자연환경이나 우리 주위의 생활환경적 요소를 대폭 채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많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역사적 자산'의 범위를 그 방향으로 대폭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것들을 참고로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은 분류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표의 사용목적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역사를 말해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거리 만들기를 할 때에 치명적인 누락을 하지 않기 위함이다. 개개의 도시에서 '역사적 자산'의 목록을 만드는 경우에 각각의 분야를 가능한 한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분류표 사용에 수반하는 결점도 있다. 이 분류표는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분야, 종류, 사례를 나타내고 있어서, 각 도시·지역의 특징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분류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그 지역에 맞는 궁리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류	종류	주요한 사례 (※은 도시 수준에서 특히 중요한 것)
도시를 둘러싼 자연풍경	산·구릉	※산·구릉의 능선과 그 푸름 ※멀리 보이는 명산 ※사면림
	수변	※도시에 접한 바다·호수·강의 수변공간·식생
하천·수로· 우물 등	하천	※시를 관통하는 하천의 풍경, 그 부속물(제방[堤]·역사적 교량· 독[堰])
	운하·용수	운하·용수의 석축·돌계단·常夜燈·독·역사적 교량·물레방앗 간
	작은 수로	예로부터 있는 수로망·봇둑·수로교
	우물·연못	유명한 우물, 연못(특히 역사나 전설과 관계 있는 것)
도로	근세 이전의 도로	※산기슭의 도로·오솔길 등
	근세 이후의 도로	※가도와 그 교차점(辻), 부속물(이정표·도로표지·도로수호산 地藏)
	도로의 공간구성	히로코지(廣小路넓은 가로)·升形(?)·오테미치(大手道성의 정문 출입로)·오래된 언덕길·좋은 분위기의 골목
	도로에 따른 시설	혼진(本陣;역참의 大名(일본의 봉건영주 용 숙새·튼야바間屋場 역참에서 人馬에 관한 사무를 보던 곳), 휴게실,차집,주막
근대이전의 공공건물·시 설 등	성채	※성터 ※성이나 성채의 건물 ※석축 ※해자[堀]
	종교시설	사원의 경내·역사적 건물·숲, 마을 당[堂], 작은 사당[小祠]
	기타	민속무용무대, 인형무대, 누각, 유명 정원, 유명 나무 및 고목
근대이후의 공공 및 산업용 건물·시설 등	행정용의 건물	※현청 ※구청 ※시청 ※읍면관청, 회의장, 재판소, 형무소
	교육용의 건물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기타의 건물시설	교회, 공회당, 극장, 영화관, 은행, 공원
	교통시설	정차장, 철교, 터널, 창고, 항만, 등대, 세관
	산업시설	공장, 굴뚝, 창고, 누에고치창고, 발전소
거리·민가	역사적인 거리와 민가	전통가옥의 거리, 절 마을, 그것들을 구성하는 역사적인 건물 공 작물(민가·곳간·담·문·돌담·돌다리 등)
	농어촌의 취락	전통적인 가옥구조, 민가, 곳간, 돌담, 나무담, 가옥에 달린 숲
	근현대의 건물	거리를 특징 지우는 기와형태·서양식·신예술 하르누보 건물, 시 민에게 친근했던 근대양식의 건물
전설지·생가 ·명소 등	전설지	도시의 기원전설이나 기타의 전설과 관계가 있는 장소·무덤·우 물
	역사적인 장소	※도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
	생가·고가	저명한 문인·예술가·정치가 등의 생가나 살았던 집
	명소	예로부터 주민에게 친근했던 벚나무·매화나무·등나무등의 명소 전망대
유적	이미 알려진 유적	취락터, 고분, 고대 관청터, 고대 사원터, 중세 성터
	미발견의 유적	도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 (※도시의 역사적 중심, 역사가 오랜 교차로나 다리의 부근, 유적 전승지)

## 1.6 역사적 자산의 정보 수집

상기의 분류표와 같은 분류를 따라서, 각 도시의 '역사적 자산'의 목록을 만들 때는, 그때까지의 조사성과에 대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를 참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에는, 최근 각지의 공립도서관이나 향토자료관이 향토자료실 따위를 설치하여 도서의 수집이나 참고문헌을 충실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개별의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 유적 : 고분, 취락터, 성터 등의 유적은 시읍면 교육위원회가 매장문화재분포지도를 작성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 시읍면지 : 특히 신사, 사원, 명소, 전설지 등의 참고가 된다.

- 고지도 : 오래된 도로, 수로, 독, 토지구획 등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고지도의 복각본도 상당수 간행되어 있다.

- 건물 : 전국적인 것으로는 "총람 일본의 건축", "일본근대건축총람", 각 현 단위의 것으로는 현 교육위원회에서 간행된 '민가건축조사보고서', '근세사찰건축건축조사보고서', '근대화유산조사보고서'가 있다.

- 거리 : 문화청의 보조사업으로 1973년부터 시행된 '전통적 건축물 보존대책조사'의 보고서가 전국 103지구에 대해서 94권으로 간행되어 있다. 재단법인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구 명칭은 관광자원보호재단)으로부터도 1971년 이후 함께 148권이 되는 거리(51권)와 자연환경의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어 있다. 이것들은 자신의 도시의 것들뿐만 아니라 조사방법 등의 면에서도 참고가 된다. 민속, 석조유물, 지명, 고목명목(古木名木) 등의 조사보고서도 시읍면으로부터 다수 간행되어 있다.

## 1.7 마을 걷기와 분포지도 만들기

이상 언급한 참고자료를 사용하면, '역사적 자산'의 분류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목록 만들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때는 도



시의 각 지역을 살살이 걸어다니면서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재미난 발견을 할 수 있다. 또 그런 때는 고지도를 휴대하면 재미난 발견이 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필자도 사와라시의 추케이(忠敬)다리 곁에 있는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로 된 공중변소가 실은 에도(江戸)시대로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든지, 스자카시 음식점가 안에 있는 명치 초기의 초등학교 자리가 에도 시대의 마을 회의소 부지 내에 있던 서당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즐거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다음으로 이 실지조사, 고지도, 참고문헌 등으로부터 얻은 성과를 현대의 도시지도 위에 기입해 본다.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밀접한 연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여기저기에 더러운 진흙 구덩이가 되어 널려있는 수로가, 이전에는 등고선을 능란하게 이용하여 마을 중을 그물코처럼 짜여져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연지형에 어떻게 능란하게 적응하여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이 모두가 현대의 거리 만들기에 많은 참고가 된다.

거리를 살살이 걸어서 자기의 눈으로 ‘역사적 자산’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에 주민 집단이나 행정 측의 주축로 행해지는 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거리 걷기’를 즐겁게 함과 동시에 거리 만들기에 연결시키는 궁리 또한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8 역사적 자산들의 상호관계를 보는 시각

‘역사적 자산’은 이미 밝힌 것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존재하고 있다. 개개의 ‘역사적 자산’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서로간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의 개인플레이와 팀플레이와 비견될 수 있다.

도시계획·건축과 관계 있는 ‘역사적 자산’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다음 세 가지수준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다.

- 첫째로는, 개개의 건물, 수목, 도로표지 등이 그 자체로서 지니는 가치이다.
- 둘째로는, 그것들이 모여서 지구나 거리를 만들어 낼 때 생기는 가치이다. 일본의 도시는

현재에도 매우 특징적인 풍경이나 분위기를 갖는 지구나 거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 세 번째로는, 도시 전체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의 가치이다. 이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도시는 중국이나 유럽의 도시와 같이 주위를 도시성벽으로 두르는 일이 드물며, 현재에도 시가지의 바깥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도시의 중심을 특징 지우는 광장도 없다. 그러나 이 점은 일본의 각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구성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대다수의 도시 풍경을 바깥으로부터 구별 지우는 것은, 멀리 있는 산과 언덕의 늘어선 모습이다. 그것들에 의해서 구획된 자연지형에 능란하게 적응하는 것이 일본 도시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도시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강을 끼거나 능선이나 등고선을 타고 가다가 가장 건너기 쉬운 지점에서 강을 건넌다. 그리하여 도하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도 있다. 죠카마치(城下町: 성곽도시, 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가지)의 대다수는 평야에 돌출한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자락에 무사와 상인이 사는 마을이 계획되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산과 언덕이 늘어선 것, 도시를 관통하는 강, 바닷가 도시의 해안, 예로부터의 가도, 성터 등이 일본의 각 도시 고유의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골격인 것이다. 이 골격은 그 일부는 자연환경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기도 하다.

기타, 역사적 건물 중에도 시민의 다수가 친하게 지내는 시청, 읍면 사무소, 고등학교 등은 도시 수준에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9 거리 만들기에 있어서 역사적 자산의 평가

이상과 같이 많은 수의 '역사적 자산'의 예를 들다보면,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실제로 진행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어서는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의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대부분은, 도시의 '역사적 유산'을 잘 생각하면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 시대에 세워진 서양식 건축은 지금도 도시의 풍경에 잘 어울리고 있다. 개개의 주택들도, 거리에 잘 어울리도록 지어져 있다. 따라

서 마음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을 어렵게 만든 것은, 하나는 경제효과와 편리함의 최대한으로의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양식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오래된 건물이나 도로 등의 도시시설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기가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거리 만들기에서 '역사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성하고 혹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의 거리 만들기에서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가는가는, 원칙적으로 '역사적 자산'이 지니는 가치와, 한편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안전, 편리, 생활수준의 향상 등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생각하면서, 주민 자신이 충분한 검토를 행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마침 이 책을 교정 중이던 1월 17일 한신(阪神)·아와지(淡路) 대지진이 일어나, 기술력을 과신하고 경제효율을 최대한으로 추구한 현대도시재해의 참상을 뚜렷이 보게 되었다. 도시의 역사 중에는 언제나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자연과 인간의 오랜 관계방식의 역사도 이제부터의 거리 만들기에서 충분히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부터의 거리 만들기에서는, 사고방식이나 실제의 계획 및 실시를 위한 다종다양한 궁리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의 사고방식이나 실시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그것들을 읽으실 때에,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역사적 자산'을 '활용하는' 일에는 폭넓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역사적 자산' 중에서 예술적·역사적·과학기술적 등의 가치가 특히 뛰어난 것은 '문화재'로 자리매김되어 원래의 형태나 재료를 가능한 한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활용하는' 작업은 그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거리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서양식 건축을 그 지역을 특징짓는 것, 즉 랜드마크(landmark)로 선정하여 외관을 남기고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1.2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보존'의 개념에 '역사적 자산'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더하여, '재생'이라는 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둘째로, '역사적 자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개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보존을 도시계획의 기본방침(마스터플랜)과 개발계획의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영국의 시빅 트러스트 회장인 마틴 브래드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초부터 보존을 계획에 집어넣음으로써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유지되고, 또한 개발은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는 사실이 이해되게 된다. 보존활동이 기업활동의 방해요인이고 기업을 적대시하는 행위라고 기업 측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1994년 1월, 동경에서의 강연)

이 의견이 옳으며 또한 당연하다. 이제부터 일본의 도시에서도, ‘역사적 자산’의 목록 만들기  
기에 이어서, 그것들의 보존이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내에 편입되어질 필요가 있다.

## 2. 도시경관조례로 보는 역사적 자산의 계승과 거리만들기

지역의 개성을 살린 거리 만들기라는 사고방식이 정착해가는 가운데, 조례를 제정하여 거리 모습의 보전·창출에 몰두하는 시읍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눈부시게 증가하여 이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근년 들어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행정구역 이름.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들이 제정하는 경관조례도 다수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를 바라보고 경관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들이 맡아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자치체가 경관에 몰두하게 된 데 대해 그 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발생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파괴, 역사적인 건조물의 파괴, 공동체의 붕괴와 같은 다중다기한 뒤틀림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에 그 뿌리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경관’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면서, 거리 만들기라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판이 짜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하여, 지역의 역사적·풍토적 특질이나 생활관습에서 거리 만들기의 원점을 찾아내고, 주민이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환경의 질을 보전·개선해나가는 사상이, 경관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 환경의 보전이라는 과제는, ‘경관’ 개념의 형성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도시경관행정의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경관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역사적 건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역사적 자산이 지역의 개성을 연출하는 소재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경관’은 거리 만들기를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시초손에 의한 경관조례 제정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역사적 자산을 거리 만들기의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1 역사적 환경 보전의 움직임

#### (1) 국가에 의한 환경문제의 대처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에 공해방지, 자연환경보전, 안전하고 보건적인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례가 일거에 제정되고, 그 후로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역사적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조례는 이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내닫기 시작하여 도움닫기 기간을 거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초순 지역 전체의 경관형성계획으로까지 시야를 넓힌 조례로 모아져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선 위에서 밝힌 동향과 관련 있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 사회적 배경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한다.

전후의 경제부흥 속에서 생긴 다양한 공해의 피해에 맞서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공해방지대책의 통일적인 기본이념이 제시되었다. 그 이념이란, 건전한 경제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건강의 보호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제발전이 우선시되었고, 공해문제는 건강 상 피해에 대한 구제 이상의 것이 되지는 못하였다.

공해대책 기본법은 1970년의 통칭 공해특별국회를 거치며 개정되어, 경제발전과의 조화라고 적힌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 특별국회에서는 공해방지가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법령(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법, 소음 규제법 등)에서 정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이나, 법령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항목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 개정을 일구어낸 것은,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재판도 불사한 주민운동이나 요코하마시 공해방지협정(1964년), 도쿄도 공해방지조례(1969년) 등과 같은 선진적인 자치체의 기획들이었다.

1972년에는 자연환경 보호의 종합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자연환경 보전법이, 그 다음 해에는 도시 및 도시 근교의 녹지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녹지 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들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연공원법(1957년)이나 도시계획법(1968년) 상의 풍치지구제도 등 관련 법제도 속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왔지만, 법률로 지킬 수 있는 지구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재단법인 카마쿠라(鎌倉) 풍치보존회, 텐진자키(天神崎) 보전 시민협의회, 시레토코(知床) 100m<sup>2</sup>추진본부를 시작으로, 주민단체와 자치체에 의한 자발적인 토지매수운동이 힘을 발휘하여 여론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츠루오카 하치만구(鶴岡八幡宮)의 뒷산에 계획된 미타니(御谷) 택지조성을 막기 위하여 재단법인 카마쿠라 풍치보존회가 일으킨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후술할 고도(古都)보존법(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에 관해서는 고사사(古社寺: 오래된 신사와 사찰)보존법(1897년), 국보 보존법(1929년)의 흐름을 계승하여 1950년에 문화재보존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는 문화재 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정한 것으로, 그 운용에 있어서는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신사와 사원, 성곽, 주거 등의 건조물을 엄선하여 중점적인 보호를 도모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꺾대를 올리는 가운데 역사적인 거리는 자취를 감추고, 문화재의 주위경관도 급격히 변화하여, 개체 지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만으로는 일일이 쫓아가며 대응할 수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카마쿠라시의 미타니 택지화문제가 1963년에 발생하고 그 다음 해에는 교토시에서 교토 타워 건설문제가 일어나는 등, 일본의 고도인 교토, 나라(奈良), 카마쿠라조차 역사적 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여론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제정된 것이 1966년의 고도보존법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건조물, 유적 등이 주위의 자연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에 있어서의 전통과 문화를 구현하거나 형성하고 있는 토지의 상황’을 ‘역사적 풍토’라고 정의하고, 역사적 풍토 보존지구의 중핵이 되는 특별보존지구를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지구로 정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역사적인 자산을 주위의 자연환경과 함께 하나의 공간, 면(面)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그것을 도시계획 속에 짜 넣는다는 획기적인 법률이었지만, 교토시, 나라시, 카마쿠라시의 중요한 고찰·고신사나 별궁 또는 사적지와 그 주변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관계로, 민가들이 형성하는 역사적인 거리 모습이나 취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에도(江戸)시대 환호(環濠)취락의 거리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아온 나라현 카시하라시(橿原市) 이마이쵸(今井町)에서는, 1957년에 이마니시가(今西家)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72년에는 새로이 6건의 민가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지정의 배경에는, 점(點)을 집중시킴으로써 면(面)의 보존을 꾀한다는 함축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마이쵸는 특별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역사적인 거리들을 보존하게끔 되었다.

1970년 전후에 국가가 환경문제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공해대책, 자연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법률을 통해 기본 이념이 나타내졌지만, 역사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

정된 지역을 엄선을 통해 중점적으로 보호해나가는 제도가 창설된 데에 불과하여, 그 이외의 지역에 관해서는 국토개발, 도시개발 속에서 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 (2) 역사적 환경의 보전

고도보존법에 포함되지 않는 역사적 취락과 거리의 보전을 조례를 제정하여 이루고자 하는 시책은, 1968년 카나자와시(金澤市) 전통환경 보존조례, 쿠라시키시(倉敷市) 전통미관 보존조례에서 시작된다. 1971년에는 야나가와시(柳川市) 전통미관 보호조례, 모리오카시(盛岡市) 자연환경 보존조례, 1972년에는 교토시 시가지경관 보존조례, 타카야마시(高山市) 시가지경관 보존조례, 하기시(萩市) 역사적 경관 조례가 제정되었다. 1970년대라고 하면 사이타마(埼玉)현 카와고에시(川越市), 나가노(長野)현 나라이야도(奈良井宿), 나라현 이마이쵸, 홋카이도(北海道) 오타루(小樽) 등 전국 각지에서 역사적 환경을 지키려는 운동이 생겨나던 때로서, 위 도시들에서도 일찍부터 주민들이 생활 주변의 환경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오카야마(岡山)현 쿠라시키에서는 민간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민가의 아름다움이 재평가되었고, 1946년에 오카야마현 민예협회가 발족하여 1948년에 막부 다이칸(代官: 에도 시대 막부와 제후의 직할지를 관장하던 지방관)의 공간이었던 건물을 개축하여 쿠라시키 민예관을 개설하고 있다. 그 다음 해에는 전통적인 거리의 부흥과 보존을 행할 목적으로 쿠라시키 도시미(都市美) 협회가 설립되었다.

기후(岐阜)현 타카야마시에서는 1966년 타카야마시 죠산지쵸(上三之町)보존회(1971년에 에비스다이구미(恵比須台組)거리보존회로 개칭)가 결성된 바 있다. 이 시에서는 1960년대 전반부터 이미 타카야마 축제와 강을 키워드로 하여 주민들 스스로 생활환경의 보전·개선에 착수하였고, 타카야마시 환경보전 기본조례, 타카야마시 녹화(綠化) 보존조례, 타카야마시 건축협정조례가 시가지경관 보존조례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생활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 시민의 높은 의식이, 전통적인 행사나 강의 맑은 물로부터 역사적인 거리의 보존으로 이어졌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가노현 미나미기소쵸(南木曾町)의 츠마고(妻籠)에서는, ‘팔지 않기, 빌려주지 않기, 파괴하지 않기’로 유명한 츠마고쥬쿠(妻籠宿)를 지키는 주민현장이 주민들에 의해서 채택되었고,



1973년에는 츠마고쥬쿠 보존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쥬쿠바(宿場: 역참) 거리의 복원을 통해 과소화(過疎化)한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한 츠마고의 사례는, '보전된 거리'가 하나의 지역발전상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의 조직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과 거리의 보전이라고 하면 '향수병적' '감상적'이라고까지 간주되었던 시대에, 역사 풍토를 바탕으로 자라온 생활관습으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거리 만들기를 해내려는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선택을 해 왔던 것이다. 그 의지를 각 시쵸손들이 조례협정이라는 형식으로 사회에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쿄토·나라의 보존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1970년), 국철의 '디스커버 저팬' 캠페인(1970년) 등은 이러한 시도에 박차를 가한 것들이었다. 또한 건축가들이 거리의 조사활동(디자인 서베이)을 통해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의 우수함을 재인식한 것도 역사적 환경 보전의 추진력이 되었다.

이러한 여론조성을 배경으로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전통적 건조물 보존제도가 창설되었다. 이후 시쵸손에 의한 역사적 환경을 지키는 조례는 적은 수이지만 증가하여 갔다. 그러나 세상이 급속히 효율화되어 생활양식이나 상업형태가 변하는 가운데, 종래로부터의 엄격한 문화재 보호수법에 얽매인 '보존'이라는 사고방식과 거주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양대 과제의 사이에 끼어, 그 도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 환경의 보전이라는 총론에 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꿈무늬를 빼고 개발업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는 속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에 걸쳐서 조례제정 상황은 정체기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 ① 건조물의 외관이 지니는 공공성과 사적인 권리간의 균형
- ② 계승해야 할 것과 발전시켜야 할 것의 선택
- ③ 보존이 가져다주는 지역활성화라는 효용

등의 다중 다기한 토론 속에서, 환경 개선이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부담이라는 측면이 자각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역사적 환경의 보전은 지역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그 실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역사적

환경 보전의 실천사례 하나 하나가 심각한 비중을 지니는 것이었고, 그렇게 도시경관 시책의 토대를 형성해 나간 것이다.

## 2.2 역사적 경관의 보전으로부터 도시경관의 창출로

### (1) 도시경관 ‘창출’의 개막

타카야마 시가지경관 보존조례에서는 ‘본 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건조물 등이 주위의 자연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본 시에 있어서의 전통과 문화를 구현하거나 형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가지경관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토시 시가지경관조례도 역사적 경관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의도한 것이었다.

한 편 1978년의 코베시(神戸市) 도시경관조례는, 코베의 위상을 의식하여 그 의도 속에 뛰어난 도시경관의 창출 또한 적극적으로 내포하는 경관유도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도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즈음 요코하마시(横浜市)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도시공간’을 목표로 오도리 공원(大通り公園, 1971-78년), 쿠스노키 광장(くすのき廣場, 1974년), 도심 프롬나드(都心プロムナード, 1974-76년) 등의 정비가 진행되어, ‘어번 디자인(도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전국을 상대로 발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차길[馬車道]의 재생은 마차도상점가 회원 전원이 ‘거리 만들기 협정’(1976년)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협정의 목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역사적 건조물이 남아있는 지구의 특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일본화재 요코하마 빌딩의 개축 시에는 문화재 보호라는 관점으로부터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외벽 보존을 하였던 것입니다.

1981년에는 도시계획법 안에 지구계획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지구계획이란 ‘건축물의 건축형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의 배치 등으로부터 볼 때, 일체를 이루어 각각의 구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양태를 구비한 양호한 환경의 각 가구(街區)를 정비 및 보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주민참가 하에 자치단체들이 지구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물의 용도, 용적율, 건폐율, 벽면의 위치, 의장(意匠), 색채, 외구(外構)의 제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지구정비계획의 책정), 규제(規制)의 수법으로 시가지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효고(兵庫)현 도시

경관의 형성 등에 관한 조례(1985)에서는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지구계획제도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단, 다수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구에 응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지원조치, 조성조치도 없이 말 그대로 규칙으로 구속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는 쪽에서도 양호한 생활환경을 얻기 위한 부담에 관한 튼실한 자각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으로, 이 다음 해에 나카소네(中曾根) 내각이 성립하여 토지이용규제완화, 민간활력의 유입, 그리고 국유지의 불하를 근간으로 하는 어번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렸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리하여 주민이 주체가 된 거리 만들기와 민간 개발회사에 의한 도시개발의 사이에서 대립이 격화하여, 1984년 이후 도시경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수가 가속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러나는 몇 가지의 경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2) 최근 경관조례에서 보이는 특징

### 1) 역사적 경관의 보전과 경관대책과의 융합

먼저 많은 경관조례에서 중점적으로 정비해야할 지역(경관형성지역 등)을

- ① 해안, 산지 기타 풍부한 자연을 지닌 지역 <자연 풍경의 보호>
- ② 전통적, 역사적인 건조물이 집적해 있는 지역 <역사적 경관의 보호>
- ③ 주요한 도로 또는 하천에 연한 지역 <연도, 연안 경관의 수경(修景)·창출>
- ④ 주택, 상업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등, 도시시설이 집적한 지역, 또는 집적이 예상되는 지역

<일반 시가지의 수경·미화, 새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 ⑤ 기타, 경관 형성 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이라고 정하고 있듯이, 시민이 공유하는 다양한 경관을 동등하게 소중한 것으로 파악하고, 각각에 어울리는 지구를 시 지역 안에 정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힌 경관조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조례’가 ‘카나자와시에 있어서 전통환경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에 관한 조례’(1989년)로, ‘하기시 역사적 경관 조례’가 ‘하기시 도시경관조례’(1991년)로, ‘오타루시 역사적 건조물 및 경관

지구 보전조례'(1983년)가 '오타루의 역사와 자연을 살린 거리 만들기 조례'(1992년)로, '나가노 시 전통환경 보존조례'(1983년)가 '나가노시의 경관을 지키고 가꾸는 조례'(1992년)로 개정된 것이 그 사례이다.

더욱이, 와키마치(脇町) 시가지경관조례(1988년), 아리타쵸(有田町) 도시경관조례(1989년), 나라시 도시경관조례(1990년)와 같이, 이제까지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던 전통적 건조물군의 보존을 경관조례 속으로 편입시킨 시초손이 늘어나고 있다.

지켜야 할 특별한 지구로서만 구획되어, 일반 시가지와는 별도 취급되어 왔던 역사적인 지구가 시 전체의 경관계획 안에서 위치 지워져서 그 역할, 유용성이 인정된 사실에서 커다란 의의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건축개발지도와 경관시책과의 융합

도시 개발 속에서 희소한 것이 된 역사적 자산의 보전은, 지역의 개성을 활용한 거리 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윤의 추구를 우선하는 기업의 경영자세와 대립하여, 지역의 현상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기준법·도시계획법의 존재방식에 의문을 느끼고, 땅값 문제에 부딪히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된 건축행위의 '자유'가 때로 '파렴치'임을 깨닫게 되는 등, 거리가 복잡하게 얽혀드는 온갖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끔 되었다. 이제 '경관'은, 거리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시정책 안에 효과적으로 편입되어 지고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고급 아파트, 휴양지 빌라의 건설 등 시가지의 대규모 개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의도하는 조례 또는 요강 내에, 도시의 미관이나 정체성의 함양을 집어넣는 동향도 그러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카나가와(神奈川)현 마나즈루쵸(真鶴町)에서는 1989년에 '택지개발 지도요강'을 강화하고, 1990년에는 '상수도사업 급수규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3년 6월에 '마나즈루쵸 거리 만들기 조례'를 공포하기에 이르고 있다.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 속에는 건설행위의 기준, 절차와 함께 '미의 원칙'을 배려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마나즈루쵸는 '마나즈루쵸 거리 만들기 조례·미의 기준·디자인 코드'를 발행하여 경관의 지도에 노력하고 있다.

니가타(新潟)현 유자와쵸(湯澤町)에서도 1987년의 '택지개발 및 중고층 건축물 지도요강'과

그 다음 해의 '지하수 채취의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색채계획 협력기준에 따른 건축 지도에 착수한 바 있다.

오이타(大分)현 유후인쵸(湯布院町)에서는, '유후인쵸 자연환경 보호조례' 및 '유후인쵸 주 환경 보전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발전 통합시킨 '정감 있는 거리 만들기 조례'(1990년)를 제정하였다.

### 3) 도도부현에 의한 경관형성시책의 전개

시초손 뿐만 아니라 도도부현에 의한 경관조례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시가(滋賀)현의 '내 고향 시가의 풍경을 지키고 키우는 조례'(1984년)는 비와(琵琶)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호수 고장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현이 매우 광범위한 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유도해 갔던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동 현에서는 1979년에 시가현 비와 호수의 부영양화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장폐수 뿐만 아니라 가정폐수, 농업폐수에 대한 규제도 행하여, 인을 포함한 합성세제의 회수 및 처분, 연수기(軟水器)를 나눠주는 등의 활동과 함께 호수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제정된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지구 지정과 대규모 건축행위의 신고제를 중심으로 개발행위를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단체 지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초손의 조례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시초손 지역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장래를 내다보고 이념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조례가 없는 시초손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테(岩手)현, 군마(群馬)현, 사이타마현, 이시카와(石川)현, 야마나시(山梨)현, 나가노현, 토토리(鳥取)현, 시마네(島根)현, 오카야마현, 효고현 등이 그 예이다.

'토치기 고향가도 경관조례'(1989년), '아키타(秋田)현의 경관을 지키는 조례'(1993년)는 복수의 시초손을 잇는 도로와 철도의 연도·연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근년 들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간선 변의 경관들 중에서, 특히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의 법령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현이 적극적으로 토치기(@木)다운 경관의 창출에 복무하고자 한 것이다. 후자의 조례는 시가지 조정구역 및 시라치(白地)구역의 연도·연선에서 행해진 현상변경행위만을 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지 내의 인공적인 경관보다 오히려

시가지를 둘러싼 자연풍경(산악, 호수와 늪, 해안, 전원 등) 중에서, 특히 조망될 기회가 많은 범위를 현에서 보전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도도부현이 광역자치체로서의 입장을 활용하여,

- ① 현으로서 경관시책의 이념을 나타내고, 각 시초손 간의 조정을 도모한다
- ② 경관조례가 없는 시초손의 경관형성시책을 원조한다
- ③ 시초손이 각각 착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형성시책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경관형성시책에 착수하고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에 대해서는 하나의 하천으로 연결된 복수의 시초손이 연대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볼 수 있다.

#### 4) 조례명칭으로 본 시초손 경관시책의 정착

조례의 명칭이 ‘전통미관’이나 ‘시가지경관’ ‘역사적 환경 보전’과 같은 딱딱한 것으로부터 ‘녹색’ ‘거리 만들기’ ‘내 고향’ ‘거리’ 등 우리말을 많이 사용한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도, 경관조례를 수용하는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금, 건축기준법의 제한완화, 건축협정, 지구계획 등과 같이 기술적인 혹은 대상이 특정화된 조례에서는 볼 수 없다. 경관조례가 도시 표면층의 미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리 만들기의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시민 모두가 친근해 질수 있도록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보인다. 1993년에 제정된 ‘토시마(豊島)구 어메니티 형성조례’는 ‘어메니티’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최초의 사례로서 이제부터의 성과가 기대된다.

### 2.3 도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서의 역사적 건조물

#### (1) 경관 상 중요한 역사적 건조물

역사나 풍토에 뿌리내린 시초손의 독자적인 거리 만들기를 통해서, ‘경관상의 중요함’이 역사적 건조물의 가치로서 인정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중요문화재 지정기준으로 ‘의장적으로 우수한 것’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유파적 또는 지방적 특색이 현저한 것’의

다섯 개(어느 것이든 한 가지에 해당)를 설정하고 있다. 객관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평가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에게 ‘경치’로서 감회를 주는 것과 같은 대상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계승하려는 사고방식이, 시초손의 경관조례 속에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 선구가 되었던 것이 모리오카시의 작업이다.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는, 1970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함에 따라 ‘건강’ ‘깨끗한 거리 만들기’ ‘친절’ ‘향토이해’라는 네 가지를 근간으로 주민의 힘이 거리 만들기에 결집되어,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리오카시 자연환경 보전조례를 만들어 내었다. 역사적 환경의 보전에 관한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 조례는, 1976년에 ‘모리오카시 자연환경 및 역사적 환경 보전조례’로 개정되어 구체적인 보호시책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다이이치칸교(第一勧業)은행 모리오카 지점(구 이와테노코(岩手農工)은행, 타츠노 킨고(辰野金吾) 설계)의 노후화에 따른 철거가 있었다. 조례 속에는 ‘유서 깊거나 유래를 지닌 건조물 또는 도시경관 상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 건조물’을 보존 건조물로 지정할 것이 명기되어 있으며, 그 조항 아래에 ① 유서, 유래가 있는 건조물 ② 옛시대의 생활을 전해주는 건조물 ③ 옛 건축양식을 지닌 건조물 ④ 정취 있는 건조물, 이라는 네 개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건조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유자와의 신뢰관계 및 시민 감시의 눈에 의지하여 극히 느슨한 규제를 통해 보호를 꾀하는 이 방법은, ‘모리오카 방식’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역사적 건조물이라는 말에서 ‘문화재’→‘복원’ ‘동결적인 보존’이라는 연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1970년대로서는 실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시에서는 1976년도부터 1978년도에 걸쳐서 20건의 역사적 건조물의 조사를 행하고, ‘건축구조’ ‘역사고증’ ‘경관고찰’이라는 세 가지 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끌어내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1977년 1월에 6건의 보존건조물이 지정되었다.

1984년에 제정된 ‘아마가사키시(尼崎市) 도시미 형성조례’에서는, 도시미 형성 건축물 등의 기준으로 ① 주변지역의 경관 및 분위기를 특징짓는 것 ② 역사적 가치 또는 건축적 가치를 지니는 것 ③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친근감을 주는 것이라는 세 가지를 설정하고 있으며, 1988년 제정의 니시노미야(西宮市) 도시경관조례에 있어서도 ① 지구의 도시경관을 특징짓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② 역사적 가치 또는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③ 시민이 친근

감을 느끼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경관 형성 건축물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경관조례가 경관 형성 상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공작물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모리오카시의 앞서 거론한 조례가 그 후 제출된 많은 경관조례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다움(지역색, 지역의 고유성, 지역스러움)이 ‘정서’ ‘애착’ ‘친근감’으로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하리라고 여겨진다.

## (2) 역사적 건조물로부터 역사적 자산으로의 시야의 확대

앞서 기술한 ‘쿠라시키시 전통미관조례’(1968년)는 이미 ‘보존기념물: 미관지구 및 특별미관지구 내의 지정된 교량, 하안, 돌계단, 수목, 기타의 전통미관 유지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함’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고유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개의 것들을 다시 보는 작업에 의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작물, 토목건축물, 수목 등 다양한 역사적 자산을 향해서도 시선이 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근년의 나하시(那覇市)와 토시마구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沖縄)현 나하시에서는 1992년 4월에 ‘나하시 도시경관조례’(1985년)를 일부 개정하여 ‘도시경관자원의 지정’을 추가한 바 있다(제26조). 이는 지역의 정체성, 즉 거리 만들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목록화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도시경관자원이란 구체적으로는 녹색(노목, 가로수, 산울, 저택숲 등), 물(하천, 우물, 샘 등), 해안, 돌을 깬 길, 돌다리, 도로, 시각적으로 우수한 문화재, 아름다운 전망 등 감각적으로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가리키며, 지정문화재와 같이 전문적 견지에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동 시에서는 1993년도에 ‘나하의 경관자원’ 공모를 시행하여 97건의 응모로부터 89건을 뽑아 경관자원으로 삼았다. 이후로는 자원의 공모와 경관상의 공모가 1년마다 행해지게 되었다.

도쿄도 토시마구에서는 1993년 4월에 토시마구 어미너티 형성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를 실시하기 위한 어메니티 형성지침에는, 지구 가이드라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가이드라인 등 5가지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한가지가 ‘문화재 자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학술성이나 희박성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의 문화재라는 사고 방식에 더하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친근감”과 같은 감각적인 가치관’도 문화재 자원에 포함



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조물 외에 작은 사당이나 비석, 옛 길이나 거리 모습 등이 대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지역적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시대적인 오래됨이나 학술적 가치보다는 시민이 그 토지에서 길러온 감성을 중시하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산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 문화재의 범주도 확대되고 있다.

문화청은 1990년도부터 근대화 유산(건조물 등) 종합조사를 개시하였다. 근대화 유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① 근대적 수법으로 만들어진 건조물(각종 건축물, 공작물을 포함)로 산업, 교통, 토목에 관련된 것

② 에도 시대 말기로부터 제2차 대전 종료시(194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

근대화 유산에 눈을 돌리게 된 요인으로서,

① 보다 광범위하고 다기한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보호에 대한 의식이 고양

②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의 변혁, 경제효율의 중시 등에 의해 근대 일본의 기초를 구축한 설비, 시설 등의 철거와 개변이 급속히 진행

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사실이 문화재 보호의 대상이나 보호조치의 확대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목표로서 근대화 유산을 떠올리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이나 의료 등의 분야에도 근대화 유산에 해당하는 중요한 건조물이 많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군마현, 아키타현, (1990, 91년도), 후쿠오카(福岡)현(1991, 92년도), 니가타현, 오이타현(1992, 93년도)의 조사가 종료하였고, 홋카이도가 1993년도부터, 사이타마현, 토야마(富山)현, 기후현, 미에(三重)현이 1994년도부터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1993년 8월에는 아키타현의 후지쿠라(藤倉) 수원지수도시설, 군마현의 타이호토게(碓氷@)철도시설의 두 카마에(근대화 유산은 '카마에(構)'를 단위로 합니다)가, 1994년 12월에는 나가노현의 요미카키(讀書) 발전소시설 한 카마에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역사적 자산 가운데 토목산업 유구를 집어넣는 시책은, 역사를 활용한 거리 만들기 요강(요코하마시, 1988년)이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근대화 유산 종합조사는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도도부현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그 실태가 인지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성도 ‘역사적·문화적 토목시설 조사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1994년 2월), 건설성 소관의 토목시설을 중심으로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문화적 토목시설의 보존상황, 활용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 2.4 거리 만들기의 소재로서의 역사적 건조물

근년 들어 역사적 건조물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개개의 건조물의 활용, 전용을 비롯하여, 개발행위의 규칙, 도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역사적인 건조물의 규모, 형태, 의장을 참고로 고안되는 것도 많다. 기후현 후루카와쵸(古川町)의 경우 거리의 랜드마크인 세 개의 절과, 공동체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야타이구라(창고형 이동식 무대)를 지표로, 절대 높이나 이층가옥의 높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거리 만들기를 위한 회사조직이나 재단을 설립하여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도 각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교토부 미야마쵸(美山町)의 ‘미야마 고향 주식회사’, 시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의 ‘쿠로카베’(黒壁) 등이 그 예입니다. 나가하마시에서는 지역 유지와 시가 공동으로 거리 만들기 회사 ‘쿠로카베’를 설립하고 시가지 중심부 후다노시루(札の辻)의 흙벽 곳집[土蔵造り]을 매입, 복원하여 ‘쿠로카베 유리관(黒壁ガラス館)’으로 재생하고, 그 밖에도 여러 채의 건물을 이축, 수리 또는 신축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시(函館市)에서는 서양풍 목조를 특징으로 하는 하코다테 전통주택과 관련하여, 페인트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리 모습의 색채문화를 추구하는 시도(모토마치(元町) 클럽·하코다테의 색채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가 ‘공익신탁 하코다테 색채 거리 만들기 기금’의 창설에 도달하게 되었다(1993년 6월).

역사적인 건조물이 시민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생활 속으로 파고 들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는 경관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역사적 건조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

건하고, 유연한 보존시책을 채택해온 사실이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 거리 만들기 자원, 경관 자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때로 이것이 ‘문화재와는 다른 것’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구별하기보다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부여와 경관상의 가치부여를 공히 포함해 넣을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방식이나 작업이 이제부터의 거리 만들기에서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경관조례의 정착, 그것은 종합적인 환경정책 및 거리 만들기의 정착을 나타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지역에 관련을 지닌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거리 만들기를 진행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적 자산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존·활용해가는 지식이나 기술을 지역에서 보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된다. 역사적 자산이 가능한 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정보를 분산시키는 일 없이 처리하고 개별 사정에 맞는 보존·활용시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헤이세이(平成) 5년 11월에 행정수속법이 제정되었지만, 경관조례에 관해서도 토지로부터 제대로 규칙을 읽어내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의해 변해 가는 것이므로, 경관조례를 몇 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 2.5 종합정리

‘경관’이란, 평소 익숙하게 보아와서 의식하지 못했던 경치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의식되기 시작함으로써, 아름답다, 추하다, 역사적이다, 전통적이다 따위의 평가에 들어갈 때에 발생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 온 경치가 도시화의 파고 속에서 급변하게 됨에 따라, 자연경관, 역사적 경관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파악하고, 그 보존을 꾀하게 되었다. 특히 그 활동이 문화재 보호와 깊은 관련을 지니고 추진되어 온 사정과 관련하여 ‘경관이란 지키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가, ‘경관을 창조한다’는 발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경관이란 계승하는 것인가, 창조하는 것인가, 또는 조화시키는 것인가, 대비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생활환경을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려보고,

그 실현수단을 사회와의 관련 하에 생각하는 점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규칙화'한 것이 수단이 '경관조례'이다. 역사적 자산은 지역의 사람들이 공통된 이미지를 만드는 단서로써 거리 만들기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개성 있는 경관을 만들어내는 일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인 것이다.

### 3.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과 정비 - 중국과 일본의 비교 -

서구에서 성장한 근대적 도시계획은 20세기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술로서의 보편성이 엄중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회적 기반의 부재(발전도상국의 경우)와 변질(선진국의 경우)이 지적되고 있다.

세계 각 국·각 지역에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공통된 모델을 구하거나 그것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각각이 개성적인 모델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상호간에 배우는 것을 과제로 삼게 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도시계획을 앞으로써 자국의 도시계획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중·일 양국의 역사적 시가지 보존과 정비의 제도나 기법을 비교하고,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봄과 동시에, 양국이 처한 사정의 차이를 넘어서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과 정비가 지니는 보편적 의의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 3.1 중국의 역사문화도시제도

‘역사문화도시’란, 중국어의 ‘歷史文化名城’이란 단어로 사용된다.

중국의 역사문화도시제도는 1982년에 제정되었고, 1984년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제도의 안으로 포괄됨으로써, 보존계획은 총체계획(마스터플랜에 상당)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먼저 역사문화도시의 보존 그 자체이다. 두 번째로 민족적인 경관, 집의 특징, 시대의 정신 등을 대표하는 도시경관 등을 보존하여,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살리는 일이다. 세 번째로,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함과 더불어, 새로운 거리 만들기의 전개를 도모하는 일이다. 넷째, 보존계획에 의거하여 도시와 자연의 균형이 잡힌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1982, 1986, 1994년 3회에 걸쳐 합계 99의 역사문화도시를 지정하였다. 각 성도 104개의 도시를 지정하였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제도 내에 포함됨으로써 도시계획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지정된 역사문화都市는, ① 역사상 유명한 도시, ② 민족문화의 면에서 가치가 높은 도시,

③ 정치·경제·문화의 종합적인 면에서 역사상의 지위·지명도가 높은 도시, ④ 근대 혁명 역사상 중요한 도시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역사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도시의 총체계획을 국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보존계획에 대하여, ① 총체계획의 다른 분야와의 협조, ② 토지이용의 정비, 도로 정비 등, ③ 공업조정, 특히 오염원이 되는 공장의 이전이나 금지, 산업계획, ④ 관광사업의 발전계획, ⑤ 보존대상의 등급별 구분의 작성, ⑥ 건물의 높이, 색채, 양식의 제한 등, ⑦ 문화재의 보호·수복(修復)과 그 환경의 보존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국가의 승인이 내려지면,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보조금의 내용의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도로 등 기초시설(infrastructure)의 정비, ② 보존지역 내의 공장, 특히 오염원이 되는 공장의 이전, ③ 풍속·거리모습의 보존과 수복(이것은 주로 지방정부로부터), ④ 문화재의 보존과 수복(이것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⑤ 관광시설의 건설 등이다.

또한, 여가문화도시의 시장들은 매년 1회의 연구회를 열고 있으며, 또한 중국 건축학회, 도시계획학회, 고고학회, 문물보호협회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각지에서 역사문화도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3.2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계획

역사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보존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보존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총체계획을 중심으로 한 보존과 정비를 전개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보존과 정비의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검토해보고자 한다.

#### (1) 도시의 계획적 확장에 관한 모색

아편전쟁 이후 공업문명의 파도는 중국의 전통적 도시에 커다란 충격을 미쳤습니다. 도시화에 수반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시 정책을 취해야 마땅한가, 특히 전통적 도시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치가, 사회계몽가, 건축가들이 생각하고 노력하였

다.

1950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이 막 탄생한 시기에, 전 중국건축학회 회장 陣占祥 선생님과 전 淸華대학 건축학과 주임 梁思成 선생님이 '중앙인민정부 행정중심구의 배치에 관한 건의서'를 중앙인민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서에서 두 선생님은 北京의 '구 도시와 그 서측 교외주택지의 중간에 새로운 행정중심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구시가지의 보존과 신시가지의 발전이라는 두 방향의 과제에 착안하여 새로운 행정중심을 구시가지의 서쪽에 놓고, 구 북경의 격자형(grid pattern) 도로 시스템이 확장이 편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중심과 구 북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이 신중심은 구 북경과 일본 점령시에 형성된 교외주택지를 연결하여 하나의 대 북경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계획안은 외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의 보존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또한 전통적 도시의 공간구조 상의 특성과 확장방식까지도 이해한 위에서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이 계획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 북경시에서 채택된 '분산집단식'의 마스터플랜은 구 북경의 보존과 신시가의 건설을 충분히 검토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경은 불운하였다. 1959년 이후의 3년간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어서 문화대혁명기에 들어감에 따른 도시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개발된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중한 녹지가 대폭으로 감소하여, 보존이라는 과제는 한 층 어렵게 되고 말았다.

진·양 두 선생님의 건의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이념은 '제1차 5개년 국민경제계획'(1953-57)에 의한 중점건설도시에 영향을 미쳤다.

河南省 서부에 있는 洛陽은 西安과 견줄 수 있는 유명한 고대도시로서, 제1차 때의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낙양에서는 1953-57년에 중요한 중공업도시로서 건설이 행해질 때에, 전통적 시가지 및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공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잘 양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이 시행되었다.

당시의 낙양은, 지상에는 명·청대의 작은 마을밖에 없었지만, 과거 아홉 왕조의 수도였던 관계로, 지하에는 많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으리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작성에 앞서 과거의 각 왕조의 고분·성터 등을 고고학자가 조사하고, 그 범위를 분명하게 지도에 그려 넣었다. 신시가지의 배치는 이 지역을 피하였고,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는 성터의

유적은 ‘古城公園’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모든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 지하고고조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건설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후 낙양의 발전은 이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유적·구시가지의 보존과 신시가지의 개발이라는 두 방향 모두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安徽省의 성청 소재지인合肥에서는 구시가지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계획을 통해 옛 성둘레의 해자(壕字)를 멋진 환상(環狀) 공원으로 삼고, 그것을 경계로 하여 구시가지 전체를 보호하고 있다. 신시가지는 셋으로 나뉘어서 구시가지의 날개와 같이 배치되었고, 날개들의 사이에는 커다란 녹지가 파고들어 있다. 이 구조에 의해서 구시가지의 환경이 잘 보존되고 녹지도 많은, 아주 여유가 있는 도시가 되었다. 합비는 역사문화도시는 아니지만, 이러한 성공에 의해서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계획에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1983년 말 揚州에서 이루어진 ‘전국역사문화도시보호회의’에서, 청화대학의 吳良鏞 선생님은 낙양과 같이 구시가지가 신시가지의 한쪽 옆에서 발전하는 타입과, 합비와 같이 신시가지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전하는 타입을, 각각 ‘낙양 모델’ ‘합비 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 (2)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계획에 있어서의 확장이념

80년대에 역사문화도시의 지정과 함께, 그 보존계획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보존계획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도시의 공간구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간구조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보존의 개념은 순식간에 개별 문화재의 보존으로부터 도시 전체로 확장되어 갔다.

50년대 도시계획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역사문화도시의 마스터플랜에서는 ‘전체보존’의 보존이념과 ‘구조 - 면 - 선 - 점’의 보존방법이 보다 성숙하여 더욱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蘇州는 제1차로 역사문화도시에 지정되자 즉시 보존계획을 책정하고 그 요구에 따라 마스터플랜을 수정하여, ‘구시가지 보존과 도시경제 발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시가지의 서쪽에서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중략) 남·북·동쪽에서의 새로운 건축행위를 금한다’고



하는 '전체보존'의 방침을 정하였다. 신시가지는 인구 25만명, 용지 26.48km<sup>2</sup>를 예정하고, 다음과 같은 신시가지 건설의 지도방침도 정해졌다.

① 신시가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주로 산과 하천)의 조화를 추구하고, 구 소주의 이미지를 계승한다.

② 토지이용과 산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균형 잡힌 발전을 지향한다.

③ 신시가지의 기초시설의 건설을 중시하고, 보다 나은 도시환경의 형성을 촉진한다.

④ Urban design, 건축 디자인에서는 전통예술의 특색을 계승하고 창조한다.

또 구 시가지의 보존에서는 '구조 - 면 - 선 - 점'의 보존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조'란 도시공간구조의 보존이며, 즉 소주의 '路河平行'의 도로·운하 시스템, 도시의 윤곽선, 합리적인 용적률, 자연과의 조화관계 등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면'은 도시의 특색을 대표하는 지구의 보존을 말한다. 즉 소주의 平江 역사문화지구, 玄妙觀音 건축군과 전통상업지구 및 虎丘지구, 寒山寺지구 등의 보존이다. '선'은 전통적인 거리[街]·골목[巷, 상점이 없는 순주택지구 내의 골목길]·강·경관동선(경관복도, 경관이동로, 경관통로), 중국어로는 시랑(視廊)이라고 부른다. (4) '보호지구와 시랑' 등의 보존이며, 소주의 경우 '가로 셋, 세로 셋, 동그라미 하나[三橫三縱一環]'의 수계(水系), 鳳凰街, 園林路, 祥符寺巷, 拙政園과 北塔寺 사이의 '경관낭하' 등의 보존이다. '점'이란 보존해야 할 경관지점이며, 소주의 경우 수많은 정원, 민가, 사원, 다리 등이다.

구시가지의 보존이라고 해도 도시의 성장을 동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엄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桂林市는 제1차로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는 자연과의 조화, 환경용량(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위에서의 성장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중심시가지(옛 거리 지구)의 보존계획으로, 계획자들은 도시공간의 구조특성, 즉 '산 - 물 - 성(城)'이라고 하는 공감 모델을 해명하고, 시가지를 지구 특색에 따라 몇 가지의 블록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블록 별로 토지면적, 용도, 건폐율, 고도제한, 용적률, 녹지율, 건축선후퇴(setback), 주차장, 거주허가인구, 출입구, 권장건축형식, 권장건축색채라고 하는 12가지 항목의 제한지표를 부가하였다.

소주나 제림과 같은 역사문화도시뿐만 아니라 80년대의 수많은 보통 도시의 계획에서도, 공간환경보존의 사상이나 계획적 확장의 이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지역계획에 의한 산업조정

모든 도시가 모든 기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지역계획은 한 지역 안에 있는 도시의 개별 조건에 맞추어서 여러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지향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계획에는 지역계획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계획에 있어서 역사적 환경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규모의 근대 산업이다. 문화대혁명기 도시관리의 결여에 따른 공장과 주거의 혼재, 특히 오염원이 되는 공장이 전통적 시가지로 파고 들어온 일과 인구 과밀화는 보존계획이 골치를 썩히고 있는 문제이다. 그 대응책의 하나가, 지역계획에 의한 산업의 조정이다. 중국에서는 80년대 중기에 경제 지역에 기초한 행정구획의 조정, 즉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역과의 행정적 일체화를 도모하는 ‘以市帶縣’이라는 개혁이 행해졌다. 그것이 지역계획에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다.

소주의 경우 그 관할 하의 吳江縣, 吳縣, 昆山縣, 太倉縣, 沙洲縣, 常熟市와 일체화한 지역계획이 만들어 졌다.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발전을 방해하는 공장을 분산시키고, 주위에 몇 개의 鎮(작은 마을)에 각각 한 종류의 산업을 중심에 건설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1991년 말까지 56개의 공장이 이전하였다. 공장의 이전은 자금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지만, 이것도 역사문화도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 (4) 보호지구와 시랑(視廊)

보호지구와 시랑이라는 두 개의 개념은 중국의 역사적 건물과 그 환경의 정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문화물보호법(1982)’의 제12조에는, ‘문화 보호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의 주위인 범위에 건설제어지역을 지정하며, 이 지역 내의 건설사업은 문화의 환경풍모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 보호지구는 이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통은 이급제도, 즉 1급의 ‘절대보호지구’와 2급의 ‘건설제어지구’가 설정되어 있다.

역사문화도시인 소주에서는 다음의 세 단계의 보호지구가 정해져 있다.

- ▶ 1급 보호지구 : 지정된 문화재 자체의 동결보존지구
- ▶ 2급 보호지구 : 문화재 주변에서 새로운 건축을 금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지구
- ▶ 3급 보호지구 : 고도제한에 의한 환경제어지구

문화재는 국가에 의한 지정이 5개소, 江蘇省의 지정이 25개소, 소주시의 지정이 19개소가 있으며, 각각의 가치와 환경에 맞추어 보호범위와 규제를 가했다.

보호지구는 문물과 역사적 건물의 특징을 중시하여, 환경과 경관의 총체를 파악해가면서 환경용량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절대보호지구는 문화재의 관리·수복 기준에 의거하며, 건설제어지구는 도시계획의 관리 하에 놓인다. 보호지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먼저 경관보존의 관점으로부터, ① 보호대상의 최적관상위치를 보존한다 ② 최적관상위치로부터 보호대상의 형태를 완전히 관상할 수 있는 시량을 보존한다 ③ 보호대상 상호간에 필요한 시량이나 관상관계를 보존한다, 라는 세 가지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 소주의 '졸정원' 보호지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정되었다.

그리고 보호대상이 본래 지니는 설계의장원리에 기초하여 지정한다. 즉 보존대상의 주변환경의 원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용량이나 건물고도 따위를 통제한다. 예를 들어 북경 고궁과 도시중축선의 보호지구는 그와 같은 보호대상의 설계의장원리에 의해 지정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조화와 안전의 요구로부터 건설제어지구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서안의 '碑林박물관' 보존지구는 환경과의 조화요구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시량이라는 것은 보존된 역사적 건물 내외의 관상을 위한 경관동선이다. 역사적 건물의 관상에는 건물 밖에 서서 보거나 걸으면서 보거나 하는 것과, 내부에서 보는 것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중국의 역사적 건물은 서구의 것과 달라 비교적 소규모의 단위(棟)의 조합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문을 들어가도 아직 실내가 아니며, 주변의 경관이 배경이 된다. 또한 외부에서 여러 관상위치로부터 보는 경우에는 보다 넓은 주변환경이 배경이 된다. 또 배경이 되는 경관 가운데에 별도의 경관중심이 들어가는, 소위 '차경(借景)'의 경관 디자인 수법은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설계나 도시 디자인에서 빈번하게 채택되어 왔다.

경관중심(경관의 중심이 되는 건물 등)과 경관중심 간의 지역에서 시각과 미학의 요구에 따

라 고도규제를 중심으로 제어를 행하여 원래의 설계의장의 유지나 새로운 경관축의 형성 등을 도모하는 것이 시랑에 의한 규제수법이다.

이 수법은 북경·서안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서 채용되고 있다. 그 경관중심이 되는 건물은, 종루와 고루[鐘鼓樓], 성곽, 탑, 궁전, 종교건축, 공공건축이 가장 많으며, 또한 전통적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天津市의 '西開教會'와 같은 근대건축의 보존계획에도 채택되고 있다.

위에서 적은 보호지구와는 별도로, 중국에서는 역사적인 시가지의 건물의 보존과 정비를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제도의 안에서 취급하고 있다. 각 도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역사풍모보존지구' '전통상점가' '사합원(四合院)보존지구'와 같은 다양한 명칭을 붙인 보존·정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존·정비지구는 거의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 도시에서는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도시계획작성을 통해 결정한다.

보존·정비지구는 그 실정에 따라 보존·정비의 방침, 방법, 고도제한, 용적률, 디자인 규제 등을 정한다. 이것들은 모두 법정도시계획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역사풍모지구 등은 다종다양하며, 방침과 방법이 다른 성장관리정책이 도시와 지구의 실정 및 발전요구에 따라서 실시되어진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정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는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이하 중전건지구라고 약칭)가 중심적인 제도이며, 그와 같은 문화재 보호라는 틀 안에서 취급됨으로써 양호한 제도적 보증과 안정된 자금공급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 역사적 시가지의 현대도시 생활환경으로서의 성장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중전건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많은 도시와 지구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보존이 사실상 방기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이는 일본의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특권문화'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재 개념의 과대화에 관계가 있다.

#### (5) 중국의 역사문화도시 보존계획의 특징

중국의 역사문화도시 보존계획의 특징은, 먼저 전체가 도시계획제도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구체적인 보존·정비의 계획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들 수 있다.

- ① 지역계획에 의한 사회경제·산업배치의 조정
  - ② 도시 전체에 착목하는 마스터플랜에 의한 계획적 확장
  - ③ 문화재에 한정되지 않고 역사적 건물, 보존지구, 시랑, 공원, 녹지 등에 의한 도시 전체에 걸친 보존 네트워크 만들기
  - ④ 새로운 건축의 전통계승과 환경에의 조화의 강조
- 이러한 특징은 도시계획제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제도와의 관계를 지니는 것이지만, 전통적 도시의 공간구성과 확장방식 또한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 3.3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적 배경의 비교

일본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중전건지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지구의 보존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구 보존에 앞서 느닷없이 도시보존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 (1) 중국의 전통적 도시의 공간구성과 확장방식

중국의 전통적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간(間)'이다. '간'은 네 개의 기둥과 바닥과 천장으로 구성된다. '방(房, 한 동의 건물)'은 몇 개의 '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방'의 조합이 독특한 건축형식 '원자(院子, 안뜰을 둘러싸는 건물군)'를 만들어 내었다. '원자'와 그 변형은 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건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도시공간의 단위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도시의 '방(坊)'은 이러한 '원자'의 집합이다. 그리고 '원자'를 어떤 규칙, 즉 그 시대의 도시계획사상에 따라서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도시가 생겨난다. 그것도 중국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우주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어 있다. 게다가 엄격한 도시관리와 몇 개 되지 않는 계획원칙을 장기적으로 실시했던 사정과 관련하여, 전통적 도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 첫 번째로, 도시는 하나의 이념에 기초하여 계획된, 고도의 조화와 예술적 통일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은 도시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 두 번째로, 그 계획이념은 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개개의 건물을 포함한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적용되었고, 그 결과 도시 전체가 균질적인 구조를 지니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현대도시의 구조와 커다랗게 다른 점이다.

- 세 번째로 격자형 도로 시스템의 채용과 건물들의 공통적인 공간구조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고, 도시기능의 변화·발전에 용이성을 부여하였다.

- 네 번째로 전통적 도시의 공간구조는, 인구밀도의 증가에 대하여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도시용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간구조적 특성 때문에 중국의 도시에서는 계획적 확장이라는 전통이 있었다. 太原에서는 송대의 소규모 시가지에 대해서, 명대에서는 그 동편으로 晋王府를 중심으로 많은 행정용 시설을 건설하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새로운 시가지를 건설하였다. 남경에서도, 명대 초기에 수도로 선택된 후, 기존 시가지의 동쪽으로 행정지구를 건설하였다. 양주도 원, 명, 청의 삼대에 걸쳐 점차로 동편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특정 방위를 향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일을, 중국에서는 ‘정향확장(定向擴張)’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확장방식은 중국의 전통적 도시의 공간구조에 어울리게 그 보존 계획에도 살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 (2) 일본의 전통적 도시의 공간구성과 확장방식

한편, 일본의 전통적 주거는 두 가지의 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한 가지는, 마을 또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에[이에]’는 ‘안[안]’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그 이외는 ‘바깥[소토]’입니다. ‘안’과 ‘바깥’을 나누는 장치는 담[堀]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 하나는 ‘이에’의 안에 ‘앞’ ‘뒤’와 ‘위’ ‘아래’라는 두 개의 방향축이 있다는 점이다. ‘앞·뒤’축에 의해 보이는 방과 보이지 않는 방이 설정되고, ‘위·아래’축에 의해 주요한 방과 서비스용의 방이 설정된다. 거리구획[街區]은 그와 같은 주거의 집합이지만, 도시 전체의 구성은 그와는 다르다.

일본의 대부분의 도시의 성립은, 지방정치의 거점이 되는 죠카마치(城下町)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이 두 종류의 도시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계획적으로 발전한 죠카마치를 들어 그 공간구성과 확장방식 상의 특성을 보기로 하겠다.

모모야마(桃山)시대와 에도(江戸)시대 전기에는, 정치성을 중시한 죠카마치의 공간구성에 격자형 도로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고대 헤이안쿄(平安京)의 구성이념을 반영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에도를 비롯하여 죠카마치가 최종적으로 형성한 도시공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 에도는 우향 소용돌이의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나이토 마사루(内藤 昌)는 『에도와 에도성』(1966)에서 말하고 있다. 에도 이외의 예를 보아도, 죠카마치의 확장에는 무한의 거리구획의 증가와 중심을 향한 강력한 집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중국과 일본의 보존대상

도시의 공간구성과 확장방식의 차이로부터 양국의 보존대상도 달라지게 된다.

중국에서는 도시의 입지를 정하면 바로 성벽을 건설한다. 광대한 평원에 성벽을 쌓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구획하고, 입구에는 멀리서 보아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거대한 성루를 세운다. 이것들은 방어를 위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점이 된다.

그에 비해서 일본의 역사적 도시에서는 주위의 산이 도시경관을 모양 지우는 커다란 틀이 된다. 주민은 아침저녁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그 도시에 있어서의 자신의 존재를 실감한다.

거대하고 장쾌한 북경의 성벽의 파괴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유서 깊은 도시의 산 능선의 파괴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연고로 일본의 도시보존은 시가지 주위의 능선이나 산기슭의 문화재 집적지역을 ‘풍치지구’로서 지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먼저 성벽이나 성루의 보존에 착안하였고, 성루나 탑 등의 상징이 되는 건물에 맞추어서 고도제한을 행한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의 보존·정비를 위해 신시가지의 경계선을 지정한다.

다음으로, 가로구획으로부터 가로구획으로, 즉, 부분으로부터 부분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일본의 도시 발전의 실태이다. 그 때문에 현재 볼 수 있는 역사적 시가지의 전체 경계는

애매한 것이 되고 말았다. 도시 전체의 보존·정비가 행해지지 않고, 그 대신 지구 단위의 보존·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명확한 경계선을 지닌 역사적 시가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북경의 도시 중축선 계획이나, 소주의 ‘삼형삼종일환’ ‘하·로평행’의 보존계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도시계획 이념은 현재까지도 면면히 살아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정비는 문화재보호제도에 기반하여 행해져 왔다. 그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수는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정비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행해져 왔다.

한 호 한 호가 독립된 일본의 건물에서는 평가와 대상규정이 용이함에 비하여, 중국의 사합원 형식의 주거에서는 건물보다도 그 조합에 의한 공간구성의 편이 중요했던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 시가지 전체가 착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3.4 중국과 일본의 보존·정비의 진행방식 비교

지금까지 도시 차원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역사적 시가지 보존·정비의 이론 및 방법이나 역사적 배경을 보아 왔지만, 이제부터는 지구(地區) 차원과 건물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다.

#### (1) 보존·정비의 주체와 실시방식

양국의 보존·정비는 계획의 주체와 실시방식의 양쪽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주체에는 ‘행정주체형’과 ‘민간주체형’의 두 종류, 그 실현에는 ‘사업방식’과 ‘규제·유도방식’의 두 종류가 있다.

일본의 역사적 가로구획 보존·정비에서는, 행정 측이 구체적인 규제를 만들고, 그 유도 하에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장시간에 걸쳐 진행해 나가는 것이 주류입니다. 사업방식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



그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역사적 가로구획의 보존·정비가, 행정의 지도하에 행정주체의 사업방식으로 행해지며, 단기간에 완성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제도의 차이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토지와 건물의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에서는, 공공사업에서는 세세한 규제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강의 규제'로 활기 있는 마을을 정비해 가고, 모근 것은 행정적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 행정법이나 행정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것이 관리자의 자질에 따르는 문제가 되고, 이것이 정비사업에 '무모함'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규제·유도방식'으로 운용되는 일본에서 그 근거가 되는 도시 3법(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도시재개발법)은, 건축의 자유를 전제로 위생상·안전상 최저기준과 가정된 건축활동 모델에 기초하여 규제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도시에서는 위생상·안전상 최저기준으로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지킬 수 없으며, 건축활동의 모델을 아무리 늘려보아야 그 변화를 제어할 수 없다.

중국의 '무모함'에 비해서 일본의 도시계획은 토지제도와 주민의식, 합리성이 결여된 현 상황에 구속되어, 전체적이고 발본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몰려가고 있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고 도시환경을 배려하는 것과 같은 룰을 지키게끔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룰이야말로 현대의 도시법이 될 것이다. 역사적 시가지는, 유도법을 대표로 하는 현대 도시법의 생성과 성숙을 위한 아주 뛰어난 환경이 되어 줄 것이다.

## (2) 지구(地區) 차원의 보존·정비방법

일본에서는 지구 차원의 보존·정비제도가 마련되어 왔지만,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古都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와 '중전건지구'는, 현재상태로는 역사적 시가지의 극히 일부의 보존하기 쉬운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고도지구(高度地區)'를 지정하고 있는 백 수십 여의 도시에서도 그것은 시가지 전역에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많은 수의 도시들은 기존 시가지의 주변부나 주택지를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보존·정비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 시가지, 특히 도시 중심부의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과 정비라고 하는 중

요한 과제는 방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 지구에서는 ‘고도지구’의 지정도 없으며, 행정 지도에 의존하고 있다. 건축협정제도나 지구계획제도도 역사적 시가지의 정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운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실례가 많지는 않다. 지방자치체에 의해 자주적으로 만들어진 경관조례는 역사적 시가지에 관한 전문적인 조례가 아닌 관계로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본 문에서는 기존 시가지 전체의 각 지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존·정비제도를 제안하고 한다. 일본도 중국도 각 지구의 특성에 맞춘 보존·정비정책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3) 건물 차원의 보존과 재생수법

현재 세계 각국의 건물 차원의 보존·재생의 실천사례들을 검토해보면, 보존은 ‘남긴다’와 ‘부순다’ 사이의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 사이에 광범위한 범주 단계들이 있다는 점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문화재 건물의 보존은 동결보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역사적 건물은 북경이동극장의 파사드 보존을 비롯하여 전통적 디자인 모티브의 계승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재개발형’의 재생은 ‘보존’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졌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남긴다’와 ‘부순다’ 사이의 단계들을 넓히려는 실천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화와 역사를 착실히 연속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건물에 새로운 소재를 채택한다든지, 기능을 쇄신하는 것이 재생이다. 물론 재이용할 수 있는 건물은 ‘재이용형’의 재생을 해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노후화하여 재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적으로서 보존할 것인지 재개발할 것인지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개발할 경우에는 환경의 이미지, 거리 모습의 공통적인 아이디어를 유지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형’의 재생수법은 이제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이며, 보존·재생이론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는데 불가결한 작업인 것이다.

## 3.5 맺는 글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과 정비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양국의 도시계획제도와 보존·정비수법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도시 역사의 계승’이란, 도시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역사의 계승을 고려한다’는 일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에 뛰어난 전통적 도시의 골격을 계승하고 역사적 자산이 집중해 있는 시가지의 공간환경, 생활조직, 경제활동 등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각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성장관리정책을 세워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지구계획, 건축계획 등, 도시의 모든 단계의 전 분야에서 ‘도시의 종합적 보존·정비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도시라고 하는 인류 생활의 장의 요구인 것이며, 도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서 각 도시가 ‘기본방침’(마스터플랜)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마스터플랜으로 각 시읍면이 어떻게 ‘도시 역사의 계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이다.

## 4. 영국의 도시계획과 역사적 자산

이 장에서는 영국의 도시계획에서 역사적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본다. 도시의 역사를 어떻게 계승해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영국에서는 이를 이른바 문화재로서 특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일반의 문제로서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등록건조물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외에 보전지구나 런던 특유의 경관 보존을 위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될 것이다.

### 4.1 등록건조물의 역사

영국에 있어서 이른바 모뉴먼트(monument) 즉 주거자가 없는 기념물의 범주를 넘어 사람이 살고 있는 역사적인 건조물에까지 보호의 손이 미치게 된 것은, 1932년의 일이다. 이 해에 제정된 도시농촌계획법에서 지방계획당국은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별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닌가는 지방계획당국의 자세에 달린 문제였고,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아무리 공공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재산권의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역사적 건조물의 조사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알곤키도 독일군의 공습이라는 계기를 통해서였다. 1941년에 조사가 개시되어 그 다음 해에 『공습을 만난 영국의 건조물』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역사적 건조물의 사진을 찍고 실측을 토대로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은 현재에도 왕립역사적기념물조사위원회(RCHM)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건조물의 등록제도라는 사고방식이 처음으로 법률에 도입된 것은 1944년의 도시농촌계획법이었지만, 등록제도가 현재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은 1947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1947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고권(高權)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제창되었고, 등록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보상을 수반하지 않

고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역사적 건조물의 등록제도는 거리 만들기 제도의 일환으로서 지방계획당국이 당연히 지니는 권한의 일부인 것이며, 특정 건조물에 한정되는 특별한 보호제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 시점에서 낙착을 본 것이다.

## 4.2 등록건조물의 장채구조,기구,열개,짜임새,방법,절차,계획

### (1) 등록의 원칙과 범위

현재의 역사적 건조물 등록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 ① 당초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1700년 이전의 건물 전부
- ② 1700년부터 1840년까지 세워진 건물의 대부분
- ③ 1840년부터 1914년 사이에 세워진 건물은 특히 중요한 것들만
- ④ 1914년 이후의 건물은 엄선하여 비상히 중요한 것에 한정한다. 단 건축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물은 지정할 수 없다.
- ⑤ 중요한 건축가가 설계한 것 중 주요한 작품

이어서 등록한 건물의 범위를 보면, 단순히 건축의 의장이 뛰어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건축이나 역사, 병원건축, 감옥 등 사회경제의 역사를 체현하고 있는 건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다. 기타 주철이나 조립식 가옥(prefabrication), 철근 콘크리트 건축의 초기 사례, 역사상 저명한 인물이나 사물과 관련이 있는 건물도 대상으로 된다. 나아가 스퀘어(square)나 테라스(terrace)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조물군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등록건조물은 I등급, II등급, II<sup>+</sup>등급의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당초 등록건조물은 I, II, III의 3종이었으나, 1970년에 III등급을 폐지하고 그 대부분을 II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종래의 II등급 중에서 중요한 것을 II<sup>+</sup>등급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등록건수는 이 제도가 발족된 이래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단락을 본 근년에 들어서도 그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잉글랜드 지방만을 보더라도 1975년 227,000건, 1980년 273,000건, 1985년에 365,000건, 그리고 1993년 현재 합계 441,188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I등급은 약 1.5%를 차지한다.

## (2) 역사적 건조물의 목록 작성

등록건조물은 말 그대로 목록에 등재된 건조물(listed building)이라는 의미이다. 목록은 1992년까지는 환경성에 의해서 작성되었지만, 현재는 신설된 국가유산성이 담당하고 있다. 먼저 건축사의 전문가가 현지로 가서 후보가 될 건축물을 조사하고, 그 결과 적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가목록에 등재된다. 그 수는 1985년 1년 동안 1,254건이었다. 가목록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서는 그 고장의 지방자치단체나 보존단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목록에 등록되어 국가유산성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새로이 등록건조물이 늘었다고 하는 통지문서가 지방당국에 우송되고, 지방당국이 건물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 (3) 등록건조물에 대한 우대조치

등록건조물은 문자 그대로 등록된 건조물이므로, 건물의 유지관리 자체는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서 행해진다. 건물 수리비의 일정액이 자동적으로 보조되는 것과 같은 장치는 없다.

단 앞서 언급한 역사적 건조물 및 기념물 위원회가 건물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는 물론이고 소유자의 동의만 얻는다면 누구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잉글랜드 지방의 역사적 건조물 및 기념물 위원회의 약칭)가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서 회계연도에 교부한 보조금은 총액 3,300만 파운드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잉글랜드 지방만의 합계이다.

또 등록건조물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영국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건조물의 매매는 통상 자본취득(capital gain)세 30%가 부과된다. 임대료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감면조치도 자선단체에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 상속세의 감면도 마찬가지이다. 종래에는 등록건조물의 수리 등에는 15%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었지만, EC 통합의 영향으로 현재는 이러한 특전도 없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조작함에 의해서 보존에 따른 반대급부를 높이는 것이

통상적인 정책으로서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각 주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거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등록건조물을 세제우대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특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옥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의 대상으로서 똑같이 통제해나가려는 것이다.

다른 건물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건조물은 역사적 자산 가치를 평가받고 도시계획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용도지역의 규제에 보상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건조물에도 보상이나 우대조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셈이다.

#### (4) 등록건조물의 긴급수리

아무리 등록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유지관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는 훼손이 심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등록제라고 하는 느슨한 규제 속에서 어떻게 개개의 소유자가 유지관리에 관여해 나갈 것인가는 골치를 썩히는 문제가 된다. 특히 개인의 권리의식이 강한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이 문제가 '태만에 의한 파괴'(demolition by neglect)라고 불리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등록건조물이 긴급한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주로 지방계획당국이 수리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수리명령이 내려지고 2개월 이내에 수리되지 않을 때에는, 애초부터 등록자체가 부당하였다고 하여 재판으로 다투던가, 환경성의 승인을 얻어 강제 수용하게끔 된다.

등록건조물 내에 거주자가 없을 경우는 건물소유자에게 수리명령이 내려지고, 7일 이내에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지방계획당국에 의해 긴급수리가 이루어진 후 그 비용이 소유권자에게 청구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5) 등록건조물의 현상변경허가제도

등록건조물의 115㎡를 넘는 증개축이나 철거, 외관의 변경, 내부의 모양 변경에는 지방계획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에 허가(planning permission)가 필요하지만, 보통은 철거나 내부의 모양 변경에는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건조물의 경우가 더욱 엄한 규제를 받는 셈이다.

허가신청이 제출되면 지방계획당국은 신청내용을 현지에서 제시하고 지역신문 지상에 발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발허가와 같다.

즉 자신들의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은 사전에 알 수가 있다. 아는 것에 의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셈이고, 의견서를 제출한다던가 널리 여론을 일으킴으로써 계획당국이 내리는 결정에 관여할 수가 있게 된다. 주변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목소리를 내는 일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I등급 및 II<sup>A</sup>등급 등록건조물의 현상 변경 전부와 II등급 건조물 철거의 허가신청은, 지방계획당국으로부터 환경성을 경유하여 조지아 그룹이나 빅토리아 협회 등 역사적인 건조물을 조사연구하고 있는 관계 6단체에 통지하고, 이들 단체의 의견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문적인 직능단체(국립친화협회[National Amenity Society]라고 불린다)가 건물의 변경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등록건조물의 현상변경을 동결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의를 주어지는가 아닌가는 건물의 중요성과 변경의 정도에 따르는 것임은 물론이지만, 철거의 경우에도 그 뒤에 세워지는 건물이 매우 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일이 결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1992년도 1년간 등록건조물의 현상변경에 내려진 동의 건수는 잉글랜드에서만 8,627건에 이르고 있다.

### 4.3 등록건조물을 보전하려는 움직임

#### (1) 시빅 트러스트상(賞)

등록건조물을 비롯한 도시의 역사적 자산을 계승해가기 위해서 단순히 행정상 조직의 정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자산은 도시주민의 공통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개의 소유자의 이용권이나 처분권 또한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개개의 소유자들이 역사가 오랜 주택에 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에도 어떠한 설계가 바람직한가에 관한 합의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웃의 건물을 위압하고 특이한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인 것이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반짝하고 빛을 발하는 세련된 취향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디자인이라는 점, 이러한 건물이 섬으로써 거리의 경관이 점차로 정비되어 가고 주위 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도시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기 위해 시민 각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론을 형성해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몇 가지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하나로서 시빅 트러스트 상이 있다. 시빅 트러스트상은 1959년에 시빅 트러스트에 의해서 설립된 상으로, 주변환경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란, 단순히 건축작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댐이나 제방 등의 공작물로부터 다리, 도로의 디자인까지 포함된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건물의 수복이나 전용, 거리의 정비에도 적용된다.

역으로 아무리 건축작품으로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본래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나 주변과는 이질적인 의장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각 도시에서 도시경관상이나 거리디자인상 등이 제정되어 주위와 조화를 이룬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아직 이러한 정보의 전국적인 자리매김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거리디자인상의 전국협의회를 만들어 연 1회 거리디자인대상과 같은 것을 만든다면 어떨까. 풀뿌리에서의 거리 만들기 운동이 연계됨으로써 보다 좋은 거리 만들기를 위한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보게 된다.

## (2) 지역어메니티협회(local amenity society)

도시의 역사의 계승이라고 하는 난제를 우리 주변의 거리 만들기와 관련지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불가결하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

으로서, 전국 각지에 약 천 개 가량의 ‘역사를 활용한 거리 만들기’를 일구는 단체들이 있다. 이것들은 총칭하여 지역친화협회라고 불린다. 지역친화협회는 모두 시빅 트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서, 정보의 지원을 받는 외에, 지역의 환경변화를 감시하는 파수꾼, 망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개발행위가 허가제가 된 사실은 앞서 적은 바 있지만, 지역친화협회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지구에 어울리는가, 특히 등록건조물의 변형이나 다음에 언급하게 될 보전지구 내의 건물의 철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현상변경의 신청은 통상 접수된 후 수주일 사이에 일반에 공개된 후, 계획당국에 의한 허가 또는 불허의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일반에게 공개된 기간이라면 누구라도 신청내용을 알 수가 있으며, 행정당국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 밖에 건설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인근의 거주자에게는 직접 연락하는 통지가 우송되게 되어 있다. 또한 지역친화협회의 상당수는 행정 담당자로부터 신청의 일람을 회송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4.4 기타 경관정비의 장치들

##### (1) 보전지구

역사적 환경을 면적(面的)으로 보전해나가기 위한 장치로서는, 1967년에 도입된 보존지구 (conservation area) 제도가 있다. 이는 점(点)으로서의 등록건조물 보존과 일반의 도시계획규제와의 사이에 교량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 내의 건조물의 철거할 때에 역사적인 건물이든 그렇지 않은 건물이든 간에 일률적으로 지방계획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의 지역에서의 개발은 반드시 개발허가가 필요하지만, 철거는 이른바 개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행할 수가 있다. 보전지구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철거의 신청이 제출되면 당국은 이 내용을 지방신문에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의 수속절차들은 등록건조물의 현상변경과 마찬가지로, 또한 보전지구 내의 수목 벌채는 물론 가지치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지방계획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전지구는 1967년 당초의 4개 지구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잉글랜드만으로도 7,500지구를 헤아릴 정도로, 많은 지방정부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또한 보전지구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잉글리시 해리티지의 통계에 따르면 1992년도 1년간에 잉글랜드 지방 보전지구의 각종 개선사업에 합계 740만 파운드가 교부되었다고 한다.

## (2) 런던의 경관보전대책

런던에 관해서는 앞서 적은 것 외에도 경관보전을 위한 규제가 몇 가지 시행되고 있다.

첫째, 가장 역사가 오랜 것으로 세인트 폴 대성당의 주변에 있어서 대성당이 보이는 방식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인트 폴 고도(高度)라고 불리는 고도제한이 193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템즈강의 다리 위 등 대성당의 주변에 시점(viewpoint)을 설정하고, 그곳으로부터 대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경사면을 설정하여 이것을 넘는 높이의 건물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로, 비교적 최근에 되어 세인트 폴 대성당을 비롯하여 시내의 주요한 랜드마크(landmark)가 보이는 방식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점이나 시각통로(view corridor)을 설정한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최초로 표방한 것은 1976년의 대런던개발계획(GLPD)이었지만, 1991년에 공람에 붙여진 런던시의 통일개발계획(UDP)에서는 세인트 폴 대성당을 바라보는 8개의 관람회랑의 설정을, 수치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안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근년의 영국의 경관통제는 점차로 정량화(定量化)를 추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수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행정관의 재량권을 한정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생각된다.

## 4.5 역사적 자산을 계승하는 도시계획

이와 같이 영국의 도시계획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계승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고 있다.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등록건조물 제도이다. 도시의 역사를 계승하는 체제가 국가 차원에

서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시스템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계승한다고 하는 문제를 각각의 지역에게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제도 속에서 명확하게 위치지울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서는 역사적 자산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역 주민역량의 성장이 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과 학습의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환경으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환경교육, 환경학습이 앞으로의 과제로서 거론되는 것은 이와 같은 까닭이다.

도시의 역사적 자산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만들기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사실을, 영국의 도시계획제도는 우리를 향해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 5. 이탈리아 거리 만들기에서의 새로운 시도

고대 이래로 오래된 도시문화의 축적을 지닌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적인 건물이 빼곡이 들어찬 거리에서 시민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러면서도 또한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디를 가나 몸에 맞춘 듯이 편안하게 매력 넘치는 공간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몸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왠지 연극의 한 장면처럼도 여겨진다.

역사적인 도시는 획일적인 근대도시와 달라 그 토지나 장소에서밖에 볼 수 없는 특징을 활용하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번득이며 개성이 넘친다. 기와나 벽의 색도 지방마다 다르고, 도로나 광장의 모습도 각기 특징이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나 풍토도 남과 북이 판이하고, 역사적인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바닷가의 마을, 언덕 위의 마을, 산호초의 마을 등 그 입지상의 변화무쌍함이 이만큼 현란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이탈리아에서 도시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커다란 특징으로 되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각각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와 같은 존재(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자립성이 강하며, 시민들간에서도 자신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것이 오늘의 역사나 문화를 소중히 다루는 거리 만들기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리아도 1860년을 전후로 하여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이래,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기념물은 언제나 존중되고 보존되어 왔지만,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거리 경관은 계속해서 파괴를 겪게 된다. 전후 이탈리아는 일본보다도 빠른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도시 근대화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역사적인 도시공간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된다. 1960년대 내내 시민, 전문가, 행정부를 휩쓸려 들어가게 한 긴 논쟁의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도시의 역사적 중심부(첸트로 스토리코)를 보존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는 다양한 거리 만들기의 실험을 해 왔다. 원래 의논을 즐기는 사람들인데다가 의외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부류들인지라, 언제나 첨단을 가고 남들과 다른 것을 시도해 보고픈 기분도 그들 안에 있었던 터였다. 그리하여 이탈리아에서 1970년

대 이후 이십 수년에 걸쳐 일어난 역사적인 도시의 보존·재생을 둘러싼 움직임을 여기에서 소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5.1 볼로냐의 실험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전, 볼로냐는 보존의 침단을 가는 도시로서, 세계의 주목을 끈 바가 있다. 고도 성장기에는 100만의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보존·재생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도시와 지역의 형성이라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보존은 종래의 문화재라는 틀을 크게 넘어 도시계획 그 자체와 깊게 연결되었다. 첸트로 스토리코를 관광이나 문화에 편중된 특수지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또한 시민생활의 무대로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 첸트로 스토리코를 구성하는 모든 건물이 조사되었고, 건축적인 특징과 그 활용의 가능성이 분석되었다. 몇 개의 건축유형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용적이나 공간구성에 어울리는 용도가 상정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산 레오나르도 지구, 솔페리노 지구 등 5개의 서민지구를 보존·재생한다는 획기적인 공공사업을 실현하였다. 먼저 오래된 부동산 관련인 사료 등을 철저하게 활용하여 건물의 역사적, 건축유형학(티폴로지아)적인 특징을 분명히 하였다. 집합의 형식이나 정원의 양태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개개의 거리 구획마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수복·재생의 계획이 세워지고, 각각의 건물에서 주거 내의 설계도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분위기를 남기면서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원래의 주민이 같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 수복 후에 집값이 올라가서 원래의 주민들이 쫓겨 나는 것이 파리의 말레 지구 등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요소의 보존만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유지·재생이야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볼로냐에서는 강조되었다. 종래 교외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던 저가형 서민주택의 법률을 적절히 해석하여 역사적인 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사업을 넘은, 주택정책과 연동된, 역사적 거리의 재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볼로냐의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그 후 다른 이탈리아 도시의 보존·재생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만들어졌다. 볼로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공사업으로

서 역사적 거리의 보존·재생을 행한 곳으로는 안코나, 타란트, 벨로나, 비첸차 등의 도시가 있었다.

후에, 로마의 보존·재생의 경험은 또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확립시켰다. 톨 디 노나 지구와 산 파오리노 알라 레고라 지구에서 수복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건물 안에 숨겨져 있던 고대나 중세 초기의 오래된 중요한 건축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어 그것을 평가, 활용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 건축유형학적 발상만으로는 불충분하였고, 따라서 개별적인 역사적 요소를 존중하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바의 상태를 활용하여 고유의 공간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수복방법이 모색되기에 이른다. 기둥, 아치, 프레스코화 등 모든 가치 있는 요소들이 존중된다. 그것들을 살려내고 건축공간을 재생하는 것에 의해서 건물의 가치는 한 층 더 높아지게 된다. 이탈리아의 보존이론과 수법이 또 한 단계 향상되었던 것이다.

## 5.2 매력을 되찾은 중심부

도시에 대한 거친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높은 질이 보장되는 보존·재생의 거리 만들기를 추구해온 결과, 이탈리아 도시의 매력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적절한 도시의 규모가 유지되는 일에 의해서 생활의 질이 보장되고, 또한 전원이나 자연과의 연결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도심이 비즈니스 공간으로 변화하여 야간인구를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도시의 확대가 억제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사가 오랜 도심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외의 멋없는 생활보다는, 역사가 응축되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즐겁고 충실한 공간을 지닌 첸트로 스토리코가 삶의 무대로서 재평가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아 생활의 질을 추구하게끔 되었을 때, 사람들은 첸트로 스토리코에서 매력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은 제한되고, 보행자에게 개방된 가로나 광장에는 산책이나 쇼핑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하다. 차량을 제한하는 일은 치안을 회복하는 일로도 연결되었으며, 이리하여 역사가 오랜 거리공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지방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5.3 레스타우로 기술의 전개

1970년 이후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거리 만들기로 커다랗게 방향을 전환한 이탈리아는 이렇게 하여 각지에서 성과를 올려가고 있는 중이다. 첸트로 스토리코의 재생을 기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건물의 수복·재생이다. 이는 이탈리아어로는 ‘레스타우로’라고 불리며, 시민들의 일상회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첸트로 스토리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부터는 공공사업만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건설활동에서도 레스타우로는 활발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레스타우로의 방법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진폭을 보인다.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기념물의 경우, 원래의 내부공간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설비를 정비하여 현대적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인 활용이 있고 나서 비로소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일반적인 오래된 건물인 경우, 구조벽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버리는 일도 있다. 외부는 역사적 표정을 지니고 있지만 내부는 극히 모던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외부의 입면(facade)이 공공성을 지님에 비하여 내부공간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의 무대라고 하는 발상이 있다. 실내장식이나 가구의 디자인이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최근 십 수년간 이탈리아에서는 레스타우로의 센스와 기술이 점점 탁월함을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과연 이탈리아다운 매력있는 건축공간이 각지에서 출현하고 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 내 건축가의 작업의 상당한 부분을 수복·재구성의 디자인이 점하게 되었기 때문에, 절로 거기에 그들의 창조적인 감각이 빛을 더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층층이 시대가 쌓여 겹쳐지고 복합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 역사적 건축물을 상대로, 그 역사나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여 기존의 건축요소를 남김없이 활용하면서도 상상력을 발동시켜 공간을 되살려 내고 또한 재디자인을 해내는 ‘레스타우로’는, 보통의 신축 설계보다 오히려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건축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인 경관자원들 가운데에서 풍부한 가능성을 끌어내고 현대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축가의 솜씨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재의 수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가 아니지만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지닌 건축가가 역사적 건축의 수복·재생에 손을 댄으로써 이 분야를 개척하게 된 것은, 베네치아 주변에서 활약한 카를로 스칼파의 작업이었다. 특히 벨로나의 카스테르베키오에 있는 중세 고딕양식 성의 내부공간을 그 특징을 살리면서도 또한 현대적인 감각을 도입하여 우아한 전시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구상력은 지금도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건축가라면 누구나가 수복·재생을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다. 수복의 전문가와 신축 설계의 전문가 사이의 구별은 없다. 오랜 건물의 수복·재생은 이제 상식이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건설시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최근 북부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방에서 역사적 경관자원의 활용법에 관하여 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기에 그 예를 몇 가지 여기서 소개해 보기로 하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벨로나는 또한 아레나(원형투기장) 등 고대 로마의 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마을에서는 역사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지하에서 고대 별장의 아름다운 바닥 모자이크가 발견된 베로나 서민은행에서는, 그것을 보존하고 그 윗부분 천정을 뚫어 올린 벽구조를 만들어 1층의 홀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구성해 놓았다. 이러한 고대와의 대화는 벨로나의 거리 여기저기서 경험할 수 있다. 중앙부의 엘베 광장에 면한 한 부티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하 4m 정도에서 발견된 고대 광장의 주춧돌이나 담의 석축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진 건축가의 디자인에 의해 훌륭한 패션공간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입면보존’이라는 사고방식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거리 보존의 초기에는 역사적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 중요한 입면만을 보존하고 내부는 근대건축으로 바꿔 만든다는 발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건축의 한계가 인식됨에 따라 오랜 건축 내부의 공간적인 재미가 높게 평가되게 되었고, 건축가들은 그곳밖에 없는 독창적인 소재를 살린 디자인을 의욕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울울이 짜여져 있는 오랜 건축은 인간의 감성이나 신체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독특한 존재감이 있으며 현대의 건축에서는 아무리 백방으로 애를 써봐도 건줄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물의 마을, 트레비노의 운하에 면하여 역시 지역의 은행이 수복·재생한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 원래 수운이 활발하였던 시대에는 배로부터 직접 짐을 부리는 상업용 건물이었던 곳이다. 외부에서는 그 물과의 연결에 연출을 더하여, 내부에는 1, 2층에 현대미술의 화랑, 3층에는 다락방의 모습을 살린 홀을 지닌 복합건축으로 되살려 놓은 것이다. 물의 도시로서의 기억과 결합된 역사적인 건축이 이렇게 현대적인 기능을 지닌 그릇으로 활용되어 사람들의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한숨이 나오도록 부러울 따름이다.

오랜 건물을 활용하자면 기획과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의 발상의 자유로움을 존중하는 이탈리아만큼 재미있는 예가 아주 많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잘 들여다보면 귀족의 저택의 뒤편에 이어지는 과거의 마구간이 사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원의 나무들도 보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좋다는 평을 얻었다고 한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경관자원 활용에 관해 적은 서적들이 서점의 가게머리에 줄줄이 늘어서 있다. 시골의 집을 사서 자기 나름의 기호에 따라 개조하여 주거나 별장으로 활용하는 예도 흔히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소박한 농가 건물이 궁리 여하에 따라서는 그럴듯한 전원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파두바의 근교에서는 물레방아간을 개조하여 주말 저택으로 삼는 재미있는 사례를 보기도 했다. 친척이나 친구들과 주말을 느긋하게 보내는 장소로 되고 있는 것이다. 경관자원의 활용은 물론 긴 안목으로 보아 경제적인 관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역시 경제의 논리이기보다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에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근년 들어 이탈리아에서도 근대 초기에 만들어진 소위 ‘산업고고학’의 대상이 되는 공장이나 창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이들 중요한 사회적인 경관자원은 내부 공간이 큰 만큼 현대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네치아의 주데카섬에서는 19세기의 맥주공장을 시영의 집합주택으로 개조하는 흥미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굴뚝이 비상계단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지금의 이탈리아는, 아이디어 여하에 따라서 경관자원의 활용이 막대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박진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 5.4 남부 이탈리아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지금까지 주로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의 움직임은 보아왔지만, 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정체되고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남부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역사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지니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래 남부 이탈리아는 고대 그리스 이래의 오랜 역사를 지니며, 다양한 민족이 교차하여 왔기 때문에 실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지니고 있다. 개방적인 기후풍토가 옥외공간을 발달하게 하였고, 더욱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밀도 높게 교류하는 전통을 가꾸어 왔다. 석조의 건물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며, 그것들이 매력 있는 토속적인 거리경관과 취락을 형성해 온 것이다. 남부 이탈리아는 실로 거리경관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그 남부 이탈리아에서도 근년 들어 오랜 도시나 취락의 수복·재생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고 있다. 어려운 도시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폴리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논란 끝에 겨우 첸트로 스토리코 재생을 위한 행동이 개시되었다. 나폴리 대학의 공학부 건축학과에서는 이제까지의 콘크리트나 철골 등 근대 건축 기술만을 가르쳐 온 것을 고쳐 역사적 건조물의 수복·재생을 위한 이론과 실천의 연구 및 교육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사회적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바실리카타 지방의 마테라에는, 계곡의 사면을 헐거주택이 빼곡이 들어찬 샷시라는 유명한 지구가 있다. 이 독특한 거주지는 근대 들어 위생상의 이유 등으로 퇴거조치가 되어 황폐화되었지만, 70년대에 들어 재평가되어 재생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가 이루어지는 등 시당국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오래된 주거를 수복하여 이곳에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대의 기술로 재생한다면 쾌적하면서도 개성 있는 주택으로 되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의 계획으로는 장래 4,000명의 주민이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부 이탈리아의 대도시 첸트로 스토리코는 개발로부터 고립되어 어디를 가나 심히 황폐한 상태였다. 시칠리아의 시라큐사의 섬 지역에 있는 오랜 중심부도 반 슬럼과 같은 상태로 걸어다니기가 겁날 정도였던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최근 수 년 동안 역사적인 건물을 멋지게 수복·재생하여 주택이나 점포가 들어오고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성당의 앞에 자리한 멋 들어진 광장에는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즐거운 대화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늦도록까지 분주함으로 넘쳐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해변으로도 가게 되어 물가에 연한 산책로에도 세련된 가게들이 늘어서게끔 되었다. 역사적인 도시공간의 즐거움에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에 조사를 하고 있던 폴리아 지방의 치스텔니노와 같은 작은 마을(인구 1만명 전후)에서도 보존을 축으로 한 거리 만들기의 움직임이 조금씩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다. 중북부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이 남부 이탈리아에서 활용되는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다.

### 5.5 주변지역을 향한 관심의 증대

이탈리아의 앞선 지역에서 첸트로 스토리코의 보존·재생은 이미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매력 있는 도시공간이 앞으로 점점 더 되살아날 것임이 틀림없다.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역사적 환경의 보호활동은 그 바깥쪽을 향하여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벨로나에서는 완만하게 사행하는 아디제강을 따른 수변공간과 강 너머에 펼쳐지는 녹색이 풍성한 구릉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는 중이다. 강가에 있는 옛 세관의 낡은 건물을 활용하여 카누 클럽이 만들어진단든지, 물가의 산책로가 정비되는 중이다. 시당국은 강의 상류와 하류의 두 군데에 커다란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푸른 언덕의 사면에는 고대의 극장터, 교회, 성 등 역사적 유산이 많이 있는 관계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을 일체화시킨 말끔한 산책로의 정비를 계획 중이기도 하다.

첸트로 스토리코라는 것은 보통 성벽의 안쪽에 산업혁명 전에 만들어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호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경향이 있어, 19세기 후반으로부터 20세기 전반의 건물도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역시 벨로나의 예를 보면 아디제강의 북서측에 1920년대에 만들어진 전원도시가 재평가되어 그 조사가 시당국에 의해서 진행 중이다.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 길을 지닌 이 지구에는 빌라 풍의 집합주택과 개인주택이 늘어서고, 신고딕, 자유주의, 시체션, 이슬람식 등 온갖 건축양식의 모두 모여 훌륭한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은 도시 외부로도 확산되어 드디어는 주변지역의 전원 속에 점재하는 작은 마을이나 취락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첸트로 스토리코에 대하여 첸트로 미

놀레(작은 중심)라고 불린다. 산업·경제활동이 활발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된 고도성장시대가 끝나면서 오히려 풍부한 자연을 배후로 지닌 작은 마을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리하여 거주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작은 마을에도 훌륭한 역사적인 건물이 많이 포진하여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을들을 느긋하게 돌아보는 차분하고 질이 높은 관광도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가족 경영의 작은 기업이 전통적인 기술과 센스를 하이테크와 연결시켜 독창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베네치아 지방의 트레비시오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된 베네통이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5.6 새로 시작된 풍경계획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의 도시·지역 만들기에서 가장 힘주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풍경계획이다. ‘풍경’이라는 말을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이다.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도시 밖에 펼쳐진 지역을 향하고, 자연·전원, 그리고 그 가운데 점재하는 역사적 유산에 이목이 집중하게 되면서, 풍경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85년, 경승지나 해안부의 마구잡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칭 갈랏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제정되어, 풍경계획의 수립이 각 주에 의무사항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1990년 전후에는 많은 주에서 실제로 풍경계획이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다. 이들의 내용은 당연히 각각의 도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도시 주변에 펼쳐진 자연부터가 대부분 역사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들이다. 거기에도 도시의 내부와 마찬가지로 중첩된 역사적 지층이 있으며, 또한 문화의 축적이라 새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를 읽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전원의 구성을 읽어내는(분석해내는) 작업이 중요한 테마로 되고 있는 것이다. 고대 로마시대의 조리제(條里制)의 잔존물이나 고대 가도의 터가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고, 중세와 르네상스에서는 농지의 개간 시스템에도 차이를 보인다. 그 가운데에 중세의 성(카스텔로), 수도원,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의 빌라가 점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안에 잠자고 있는 온갖 경관자원을 발굴해내고 가치가 부

여되고 있는 중이다. 그것들이 지형, 식생 등이 만들어내는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어 풍부한 전원풍경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각각의 부분에서 보전과 적절한 개발 계획이 조심스럽게 책정되는 것이다.

농업의 형태도 변하여 전원을 옛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현대의 요구에 맞추어 농촌을 재생하기 위해 탄생한 하나의 방향성이 '농업관광'이다. 이는 시골집이나 농업시설을 활용하여 그곳에 숙박한다든지 요리를 즐긴다든지 하면서 느긋하게 전원지대를 돌아본다는 것으로, 주위에 있는 교회나 빌라 등에서의 문화적인 행사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역사적 문화적인 지역의 경관자원을 재평가하는 일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거리 만들기에서는 역사환경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역마다의 개성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이론과 실천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이 놓여 있는 상황은 물론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아온 이탈리아의 새로운 거리 만들기의 움직임은 우리가 금후 보다 질이 높은 생활환경을 구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참고가 될 것이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철희 책임연구원

총발연 04-02 ·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전략에 관한 연구

글쓴이 · 박철희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4년 12월 31일 / 발행 · 2004년 12월 30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 (305-313)

전화 · 042-824-7921(도시 · 지역연구부) 042-824-7910(대표) / 팩스 · 042-824-7817

SIBN · 89-89552-44-3 93320

<http://www.cdi.re.kr>

©200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